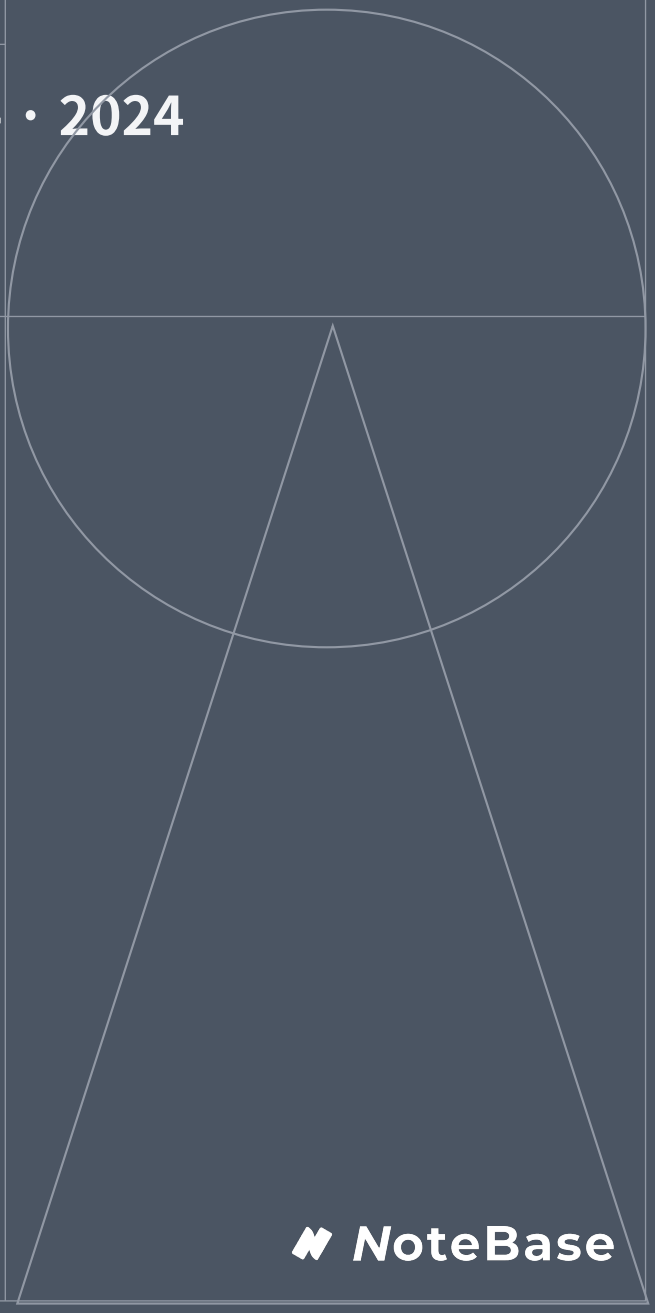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4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4

문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ㄷ.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ㄹ.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다가 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인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 및 오류수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회계정책은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할 때 적용하는 원칙, 측정기준, 관행, 규칙 및 절차이다. 회계정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후 재무제표가 거래 등의 영향을 신뢰성 있게 나타내면서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정책을 적용하거나 과거에 없었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인정되지 않는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오류수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ㄴ만 인정되는 변경이다. 거래의 실질이 과거 거래와 다르면 그 실질에 맞는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존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다. 틀린 조합 'ㄱ, ㄴ'은 'ㄴ'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ㄱ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한 정책 적용이고, ㅁ은 인정되지 않는 정책의 적용을 바로잡는 오류수정이므로 둘 다 인정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틀린 조합 'ㄱ, ㅁ'은 '둘 다 해당하지 않음'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른 의무적 변경이고, ㄷ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발적 변경이므로 둘 다 인정된다.
④ X — ㄷ은 인정되는 자발적 변경이지만, ㄹ은 과거에 없었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처음으로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틀린 조합 'ㄷ, ㄹ'은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ㄹ은 새로운 거래 등에 대한 최초 정책 적용이고, ㅁ은 잘못 적용한 정책의 오류수정이므로 둘 다 인정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틀린 조합 'ㄹ, ㅁ'은 '둘 다 해당하지 않음'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적용하는 정책이 달라졌다'는 외형만 보고 ㄱ·ㄹ·ㅁ을 모두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판단하기 쉽다. ㄱ은 거래의 실질 자체가 다르고, ㄹ은 해당 거래에 정책을 처음 적용하며, ㅁ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오류수정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존과 실질이 같은 거래에 적용하던 적정한 회계정책을 바꾸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변경 사유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인지, 또는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의 제공인지 판단한다. 실질이 다른 거래, 과거에 없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인정되지 않는 정책의 시정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인정되는 변경은 '기준서의 요구'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이고, 실질이 다른 거래·새로운 거래·오류수정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NoteBase

문 2.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상품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현금 ₩100,000을 납입받아 설립되었다. 회사는 20x1년 초에 상품 40단위를 단위당 ₩2,000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며, 20x1년 말까지 단위당 ₩3,000에 모두 현금 판매하였다. 동 상품은 20x1년 말 단위당 ₩2,500에 구입가능하다. 20x1년 초 물가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20x1년 말 물가지수는 120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하여 산출한 20x1년 말에 인식할 이익과 자본유지조정 금액은?

① 이익: ₩10,000 / 자본유지조정: ₩30,000

② 이익: ₩15,000 / 자본유지조정: ₩25,000

③ 이익: ₩20,000 / 자본유지조정: ₩20,000

④ 이익: ₩25,000 / 자본유지조정: ₩15,000

⑤ 이익: ₩30,000 / 자본유지조정: ₩1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기초의 영업능력을 기말의 특정가격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먼저 자본으로 남기고, 그 초과액만 이익으로 인식한다.

조건 정리

기초 납입자본은 100,000원이고, 상품의 단위당 특정가격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상승하였다. 기말에는 상품을 모두 판매하여 현금 140,000원만 남는다. 물가지수 120은 일반물가 변동 정보이며, 실물자본유지에 필요한 특정가격 상승률은 상품가격으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기초자본을 K_0, 기말에 유지해야 할 자본을 K_1, 상품의 특정가격을 P라고 하면 다음과 같다.
$K_1 = K_0 \times \frac{P_1}{P_0}$
자본유지조정은 기말에 유지해야 할 자본과 기초자본의 차이이고, 이익은 기말 순자산에서 기말에 유지해야 할 자본을 뺀 금액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은 일반구매력이 아니라 기업의 실물 영업능력을 보전하는 개념이므로 상품의 특정가격 변동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상품의 특정가격 상승률은 2,500원 ÷ 2,000원 = 1.25이므로 25%이다.
2. 기말에 유지해야 할 자본은 100,000원 × 1.25 = 125,000원이다.
3. 자본유지조정은 125,000원 - 100,000원 = 25,000원이다.
4. 기말 순자산은 판매대금 120,000원과 상품 구입 후 남은 현금 20,000원의 합계인 140,000원이다.
5. 이익은 140,000원 - 125,000원 = 15,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이익 10,000원과 자본유지조정 30,000원은 특정가격 상승률 25%를 기초자본 100,000원에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이익 15,000원, 자본유지조정 25,000원이다.
② O — 기말 순자산 140,000원 중 유지해야 할 자본 125,000원을 제외하면 이익은 15,000원이고, 기초자본의 특정가격 상승분은 25,000원이다.
③ X — 자본유지조정 20,000원은 실제 구입한 상품원가 80,000원에만 25%를 적용하여 기초 납입자본 전체의 실물 영업능력을 보전하지 못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이익 15,000원, 자본유지조정 25,000원이다.
④ X — 자본유지조정 15,000원은 필요한 조정액 25,000원보다 10,000원 적어 이익을 그만큼 과대계상한다. 올바르게는 이익 15,000원, 자본유지조정 25,000원이다.
⑤ X — 자본유지조정 10,000원은 필요한 조정액 25,000원보다 15,000원 적어 이익을 그만큼 과대계상한다. 올바르게는 이익 15,000원, 자본유지조정 2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③처럼 실제 매입상품 80,000원의 가격상승분만 조정하면 기초 납입자본 100,000원 전체가 나타내는 실물 영업능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또한 일반물가지수 120을 사용하는 일반구매력 기준과 상품의 특정가격 상승률 25%를 사용하는 실물자본유지 기준을 혼동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물자본유지 문제에서는 특정가격 상승률을 구한 뒤 기초자본을 그 비율로 재측정한다. 재측정 증가액은 자본유지조정으로, 기말 순자산이 재측정 자본을 초과한 금액은 이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물자본유지는 특정가격으로 영업능력을 보전하며, 보전액의 증가는 이익이 아니라 자본유지조정이다.

NoteBase

문 3. (주)세무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한편, 당기 중에 기계장치를 ₩100,000에 취득하였으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기계장치처분이익 ₩10,000과 감가상각비(기계장치) ₩40,000이 보고되었다. 당기 중 취득 및 처분거래는 모두 현금거래이다. (주)세무의 당기 중 기계장치 관련 거래가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미치는 순효과는?

계정과목	기초금액	기말금액
기계장치	₩400,000	₩410,000
감가상각누계액	55,000	65,000

① 현금유출 ₩30,000

② 현금유출 ₩60,000

③ 현금유출 ₩70,000

④ 현금유입 ₩30,000

⑤ 현금유입 ₩7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기계장치 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의 변동으로 처분자산의 장부금액을 구한 뒤, 처분이익을 더해 처분대금을 계산하고 취득대금과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기초 ₩400,000, 기말 ₩410,000이고 당기 취득액은 ₩100,000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은 기초 ₩55,000, 기말 ₩65,000이고 당기 감가상각비는 ₩40,000이다.
기계장치 처분이익은 ₩10,000이며 취득과 처분은 모두 현금거래이다.
구해야 할 값은 기계장치 취득 현금유출과 처분 현금유입을 합산한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순효과이다.

사용할 공식

처분자산 취득원가=기초 취득원가+당기 취득액-기말 취득원가
처분자산 감가상각누계액=기초 누계액+당기 감가상각비-기말 누계액
처분대금=처분자산 장부금액+처분이익
원가모형에서는 처분자산의 장부금액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 관계를 사용한다. 처분이익은 현금유입액 자체가 아니라 처분대금과 장부금액의 차이이므로 장부금액을 먼저 구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처분자산의 취득원가는 ₩400,000 + ₩100,000 - ₩410,000 = ₩90,000이다.
2. 처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55,000 + ₩40,000 - ₩65,000 = ₩30,000이다.
3. 처분자산의 장부금액은 ₩90,000 - ₩30,000 = ₩60,000이다.
4. 처분대금은 장부금액 ₩60,000 + 처분이익 ₩10,000 = ₩70,000이다.
5.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순효과는 처분 현금유입 ₩70,000 - 취득 현금유출 ₩100,000 = 현금유출 ₩30,000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한 순효과가 현금유출 ₩30,000이므로 옳다.
② X — ₩60,000은 처분자산의 장부금액일 뿐 투자활동 순현금흐름이 아니다. 틀린 표현 '현금유출 ₩60,000'은 '현금유출 ₩30,000'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70,000은 처분대금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이며 순현금유출액이 아니다. 취득 현금유출 ₩100,000과 상계하면 '현금유출 ₩30,000'이 된다.
④ X — 순액 ₩30,000의 방향을 반대로 표시하였다. 틀린 표현 '현금유입 ₩30,000'은 '현금유출 ₩30,000'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현금유입 ₩70,000은 처분거래만 반영한 금액으로, 취득 현금유출 ₩100,000을 누락하였다. '현금유입 ₩70,000'이 아니라 순효과는 '현금유출 ₩30,000'이다.

오답 포인트

처분이익 ₩10,000을 처분대금으로 보거나, 처분자산의 장부금액 ₩60,000을 현금흐름으로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감가상각비는 비현금비용이므로 그 자체를 투자활동 현금유출로 넣지 않고, 처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자산 현금흐름 문제에서는 원가 변동으로 처분자산 취득원가를 구하고, 감가상각누계액 변동으로 처분자산 누계액을 구한다. 이어 장부금액과 처분손익으로 처분대금을 계산한 뒤, 취득대금과 처분대금을 현금 유출·유입 방향에 맞게 순액으로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처분대금 = 처분자산 장부금액 + 처분이익, 투자활동 순현금흐름 = 처분대금 - 취득대금이다.

NoteBase

문 4. (주)세무는 20x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8%, 만기 5년, 매년 말 원금 ₩200,000씩 연속 상환,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였다. 20x1년 말과 20x2년 말 원금과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x3년 초 재무위기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채의 조건을 변경(무이자로 20x5년 말 원금 ₩600,000 일시 상환)하였다. 시장이자율이 각각 20x1년 초 10%, 20x3년 초 12%이고 조건변경과 관련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을 때, 동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채발행시 거래원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12%	8%	10%	12%
1	0.9259	0.9091	0.8929	0.9259	0.9091	0.8929
2	0.8573	0.8265	0.7972	1.7833	1.7355	1.6901
3	0.7938	0.7513	0.7118	2.5771	2.4869	2.4018
4	0.7350	0.6830	0.6355	3.3121	3.1699	3.0374
5	0.6806	0.6209	0.5674	3.9927	3.7908	3.6048

① 20x1년 초 사채의 발행금액은 ₩924,164이다.

② 20x2년도 인식할 이자비용은 ₩96,681이다.

③ 20x3년 초 조건 변경 시 제거될 사채의 장부금액은 ₩601,920이다.

④ 20x3년 초 조건 변경 시 새로 인식할 사채의 장부금액은 ₩450,780이다.

⑤ 20x3년 초 조건 변경으로 인해 인식될 조정이익은 ₩152,401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유효이자율법으로 조건 변경 직전의 사채 장부금액을 구한 뒤, 10% 테스트로 기존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판단하고 새로운 금융부채와 조정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발행 당시 현금흐름은 20x1년부터 차례로 280,000원, 264,000원, 248,000원, 232,000원, 216,000원이다. 최초 유효이자율은 10%이고, 20x1년 말과 20x2년 말에는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정상 지급한다. 조건 변경 후에는 이자 없이 20x5년 말에 600,000원을 일시 상환하며, 조건 변경일의 시장이자율은 12%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최초 장부금액은 미래 계약상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P_0 = \sum_{t=1}^{5} \frac{CF_t}{(1+r)^t}$$

기말 장부금액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을 더하고 실제 지급한 이자와 원금을 차감하여 구한다.

10% 테스트에서는 변경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유효이자율 10%로 할인하여 기존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차이가 10% 이상이면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 부채는 조건 변경일의 시장이자율 12%로 측정한다.

계산 과정

1. 발행금액은 280,000원 × 0.9091 + 264,000원 × 0.8265 + 248,000원 × 0.7513 + 232,000원 × 0.6830 + 216,000원 × 0.6209 = 951,636.8원이므로 951,637원이다.
2. 20x1년 이자비용은 951,637원 × 10% = 95,164원이고, 20x1년 말 장부금액은 951,637원 + 95,164원 - 80,000원 - 200,000원 = 766,801원이다.
3. 20x2년 이자비용은 766,801원 × 10% = 76,680원이고, 조건 변경 직전 장부금액은 766,801원 + 76,680원 - 64,000원 - 200,000원 = 579,481원이다.
4. 변경된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 10%로 할인한 금액은 600,000원 × 0.7513 = 450,780원이다. 기존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128,701원으로 약 22.2%이므로 10% 기준을 넘는다. 따라서 기존 사채를 제거한다.
5. 새 사채의 장부금액은 조건 변경일의 시장이자율 12%를 적용하여 600,000원 × 0.7118 = 427,080원이다. 조정이익은 579,481원 - 427,080원 = 152,401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발행금액은 924,164원이 아니라 각 연도의 원금과 이자를 10%로 할인한 951,637원이다.
② X. 20x2년 이자비용은 96,681원이 아니라 20x2년 초 장부금액 766,801원에 10%를 적용한 76,680원이다.
③ X. 조건 변경 시 제거되는 기존 사채의 장부금액은 601,920원이 아니라 20x2년 말 원리금 지급 후의 579,481원이다.
④ X. 450,780원은 변경된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 10%로 할인한 10% 테스트 금액이다. 새로 인식할 사채의 장부금액은 시장이자율 12%로 할인한 427,080원이다.
⑤ O. 기존 사채 장부금액 579,481원에서 새 사채 장부금액 427,080원을 차감하면 조건 변경으로 인식할 조정이익은 152,401원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450,780원은 10% 테스트에 쓰는 금액일 뿐 새 금융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이 아니다. 최초 유효이자율 10%는 제거 여부 판단에, 조건 변경일의 시장이자율 12%는 새 부채 측정에 사용한다는 구분이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건 변경 직전 기존 부채의 장부금액 계산 → 변경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10% 테스트 → 제거에 해당하면 변경일 시장이자율로 새 부채 측정 → 기존 부채와 새 부채의 차이를 조정손익으로 인식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10% 테스트는 최초 유효이자율, 새 부채의 최초 측정은 변경일 시장이자율이다.

NoteBase

문 5. (주)세무는 20x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20x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40%가 행사되었으며, 이후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았을 때, 동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현재가치 계산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5%(매년 말 지급)
◯ 사채발행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10%
◯ 만기상환일: 20x3년 말
◯ 행사가격: 사채액면금액 ₩20,000당 보통주 1주(액면금액 ₩10,000)를 ₩20,000에 인수
◯ 행사기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 상환조건: 신주인수권 미행사시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15%를 일시상환
◯ 신주인수권(지분상품에 해당)이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며, 만기 때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환되지 않음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10%	5%	10%
1	0.9524	0.9091	0.9524	0.9091
2	0.9070	0.8265	1.8594	1.7355
3	0.8638	0.7513	2.7233	2.4869

① 20x1년 초 인식된 신주인수권대가는 ₩124,355이다.
② 20x1년도 이자비용은 ₩87,565이다.
③ 20x2년 초 신주인수권 행사시 자본 증가액은 ₩454,254이다.
④ 20x2년 초 신주인수권 행사 직후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사채의 장부금액은 ₩1,037,174이다.
⑤ 20x2년도 이자비용은 ₩98,758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최초 부채요소를 계약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상환할증금 지급의무가 감소하면 부채 장부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연간 표시이자는 1,000,000원 × 5% = 50,000원이고, 신주인수권이 전혀 행사되지 않으면 만기에 1,150,000원을 상환한다. 부채요소의 유효이자율은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인 10%이다. 20x2년 초에는 신주인수권의 40%가 행사되므로 만기 상환할증금 지급의무도 150,000원의 40%만큼 감소한다.

사용할 공식

최초 부채요소는 이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만기 상환액의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자본요소인 신주인수권대가는 발행대금에서 최초 부채요소를 뺀 잔액이다. 이후 이자비용은 각 기간 초의 조정된 부채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 10%를 곱해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20x1년 초 부채요소는 50,000원 × 2.4869 + 1,150,000원 × 0.7513 = 124,345원 + 863,995원 = 988,340원이다.
2. 최초 신주인수권대가는 1,000,000원 - 988,340원 = 11,660원이다.
3. 20x1년 이자비용은 988,340원 × 10% = 98,834원이고, 20x1년 말 부채 장부금액은 988,340원 + 98,834원 - 50,000원 = 1,037,174원이다.
4. 20x2년 초 행사로 없어지는 만기 상환할증금은 150,000원 × 40% = 60,000원이다. 그 현재가치는 60,000원 × 0.8265 = 49,590원이므로 행사 직후 부채 장부금액은 1,037,174원 - 49,590원 = 987,584원이다.
5. 20x2년 이자비용은 987,584원 × 10% = 98,758.4원이고,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98,758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신주인수권대가는 124,355원'이 틀렸다. 최초 부채요소가 988,340원이므로 신주인수권대가는 11,660원이다.
② X — '20x1년도 이자비용은 87,565원'이 틀렸다. 최초 부채 장부금액 988,340원에 유효이자율 10%를 적용하므로 98,834원이다. 87,565원은 만기 상환할증금까지 반영한 부채요소가 아니라 1,000,000원만 상환하는 일반사채의 현재가치 875,645원을 기초로 계산한 값이다.
③ X — '신주인수권 행사 시 자본 증가액은 454,254원'이 틀렸다. 행사대금은 총 50주 중 40%인 20주 × 20,000원 = 400,000원이고, 행사로 감소하는 부채 장부금액은 49,590원이므로 총자본의 순증가액은 449,590원이다. 행사분 신주인수권대가 11,660원 × 40% = 4,664원을 더하면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대변 합계는 454,254원이 되지만, 4,664원은 기존 자본항목을 대체한 금액이므로 총자본의 증가액이 아니다.
④ X — '행사 직후 사채 장부금액은 1,037,174원'이 틀렸다. 1,037,174원은 행사에 따른 현금흐름 조정 전 금액이다. 상환할증금 감소분의 현재가치 49,590원을 차감한 행사 직후 장부금액은 987,584원이다.
⑤ O — 조정된 20x2년 초 부채 장부금액 987,584원에 유효이자율 10%를 적용하면 이자비용은 98,758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처럼 만기 상환액을 액면금액 1,000,000원으로만 보아 최초 부채요소를 875,645원으로 계산하면 상환할증금 조건을 빠뜨리게 된다. 또한 ④처럼 행사 전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행사된 40%에 대응하는 상환할증금 지급의무의 현재가치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미행사 시 실제 만기 상환액까지 포함하여 최초 부채요소를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이후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행사비율에 해당하는 상환할증금 감소액을 남은 기간의 현가계수로 할인해 부채 장부금액에서 차감한 뒤, 그 조정된 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최초에는 '이자 + 미행사 시 만기상환액'을 할인하고, 행사 후에는 '사라진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를 부채에서 뺀다.

NoteBase

문 6. (주)세무는 20x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을 10개씩 부여하였다. 주식선택권은 3년간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여되었으며, 주식선택권의 만기는 6년이다.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40이고,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50, 부여일 현재 기업의 주가도 주당 ₩50이다. (주)세무는 부여일 현재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근로용역의 공정가치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내재가치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행사된 주식선택권은 모두 회계연도말에 행사되었으며, 주식선택권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A)20x3년도에 인식할 보상비용과 (B)20x4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주식선택권은?

◯ 20x1년 중 실제퇴사자는 5명이며, 20x1년 말 추정한 미래 예상퇴사자는 12명이다.
◯ 20x2년 중 실제퇴사자는 8명이며, 20x2년 말 추정한 미래 예상퇴사자는 7명이다.
◯ 20x3년 중 실제퇴사자는 15명이며, 주식선택권 최종 가득자는 72명이다.
◯ 매 연도말 (주)세무의 주가와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연도	연도 말 주가	행사된 주식선택권 수량
20×1년	₩53	-
20×2년	55	-
20×3년	60	-
20×4년	70	400개
20×5년	65	100
20×6년	80	220

① (A): ₩3,000 / (B): ₩6,400
② (A): ₩4,533 / (B): ₩6,400
③ (A): ₩4,533 / (B): ₩7,200
④ (A): ₩7,200 / (B): ₩10,400
⑤ (A): ₩7,200 / (B): ₩14,4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내재가치법을 적용한 주식기준보상에서 가득기간 중 누적 보상비용을 다시 측정하고, 가득 후 행사된 수량을 차감하여 남은 주식선택권 잔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주식선택권은 종업원 1명당 10개이고 가득기간은 3년이며 행사가격은 ₩50이다.
20x2년 말 예상 최종 가득 인원은 100명-20x1년 실제퇴사자 5명-20x2년 실제퇴사자 8명-미래 예상퇴사자 7명=80명이다.
20x3년 최종 가득 인원은 72명이므로 최종 가득 수량은 720개이다.
20x4년 말에는 400개가 행사되므로 미행사 수량은 320개이다.

사용할 공식

연도 말 주식선택권 1개의 내재가치는 (연도 말 주가-행사가격,0)이다.
가득기간 중 누적 보상비용은 예상 가득 수량×기말 내재가치×경과 가득기간 비율로 계산한다. 당기 보상비용은 당기 말 누적 보상비용에서 전기 말 누적 보상비용을 뺀 금액이다.
가득 후 미행사 주식선택권 잔액은 미행사 수량×기말 내재가치이다. 내재가치법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 내재가치로 다시 측정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20x2년 말 내재가치는 ₩55-₩50=₩5이고 경과비율은 2/3이다. 따라서 20x2년 말 누적 보상비용은 $80 \times 10 \times ₩5 \times 2/3 = ₩2,666.67$이다.
2. 20x3년 말 내재가치는 ₩60-₩50=₩10이다. 가득기간이 끝났으므로 누적 보상비용은 $72 \times 10 \times ₩10 = ₩7,200$이다. 따라서 20x3년도 보상비용은 ₩7,200-₩2,666.67=₩4,533.33이며, 선지의 표시 단위로는 ₩4,533이다.
3. 20x4년 말 내재가치는 ₩70-₩50=₩20이다. 720개 중 400개가 행사되어 320개가 남으므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주식선택권은 $320 \times ₩20 = ₩6,4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A) ₩3,000이 틀렸다. 20x3년 말 누적액 ₩7,200에서 20x2년 말 누적액 ₩2,666.67을 차감해야 하므로 (A)는 ₩4,533이다. (B) ₩6,400은 맞다.
② O — (A) ₩4,533과 (B) ₩6,400이 계산 결과와 모두 일치한다.
③ X — (A) ₩4,533은 맞지만 (B) ₩7,200이 틀렸다. 20x4년 말 미행사 수량 320개를 내재가치 ₩20으로 측정하므로 (B)는 ₩6,400이다.
④ X — (A) ₩7,200은 20x3년 말 누적 보상비용일 뿐 당기 보상비용이 아니므로 (A)는 ₩4,533이어야 한다. (B) ₩10,400도 틀렸으며 미행사 320개만 반영한 ₩6,400이 맞다.
⑤ X — (A) ₩7,200은 누적액과 당기 비용을 혼동한 값이므로 ₩4,533으로 고쳐야 한다. (B) ₩14,400은 행사 직전 720개 전체의 20x4년 말 내재가치 합계이며, 행사된 400개를 차감한 기말 잔액은 ₩6,400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20x3년의 ₩7,200은 가득기간 전체의 누적 보상비용이지 20x3년도에 새로 인식할 비용이 아니다. 또한 20x4년의 ₩14,400은 행사 직전 전체 720개의 내재가치이므로, 재무상태표 잔액을 구할 때에는 행사된 400개를 반드시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득기간 중에는 기말마다 예상 가득 수량과 내재가치로 누적액을 다시 계산한 뒤 전기 누적액을 차감하여 당기 비용을 구한다. 가득 후에는 기말 내재가치로 재측정하고, 행사·소멸된 수량을 제외한 미행사 수량만 재무상태표 잔액에 남긴다.

암기 포인트

내재가치법의 핵심은 '매기 재측정, 당기 비용은 누적액의 증감, 기말 잔액은 미행사 수량 기준'이다.

NoteBase

문 7. 투자자의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② 둘 이상의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 어떠한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의 협력 없이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③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④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거나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⑤ 둘 이상의 투자자 각각이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K-IFRS 제1110호에서 정한 지배력의 세 가지 요건과 피투자자에 대한 힘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배력: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그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상태이다. 세 요소는 선택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힘: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그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을 때 지배력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② O. 관련 활동을 지시하려면 둘 이상의 투자자가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느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의 협력 없이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지배하지 못한다.
③ O.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부여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는 설명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힘이 있거나'이다. 지배력은 힘과 힘을 사용하여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 중 하나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그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그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해야 한다.
⑤ O. 투자자마다 서로 다른 관련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권리가 있다면,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힘을 가진다.

오답 포인트

④는 지배력의 요소를 일부 포함하여 맞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있거나'라는 표현으로 요건을 선택관계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또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도 빠져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배력 문장은 힘, 변동이익 노출·권리, 힘과 변동이익의 연결이라는 세 요소가 모두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또는', '있거나'처럼 일부 요소만 충족해도 된다는 표현은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배력은 힘 + 변동이익 + 힘과 이익의 연결이다. 세 요소는 모두 필요하다.

NoteBase

문 8. (주)세무는 제품 A를 ₩2,000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일부로 앞으로 30일 이내에 ₩2,000 한도의 구매에 대해 30% 할인권을 고객에게 주었다. (주)세무는 계절 판촉활동을 위해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판매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할 계획인데, 10% 할인은 30% 할인권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세무는 고객의 80%가 할인권을 사용하고 추가 제품을 평균 ₩1,500에 구매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을 때, 제품 판매 시 배분될 계약부채(할인권)는? (단, 제시된 거래의 효과만을 반영하기로 한다.)

① ₩214

② ₩240

③ ₩305

④ ₩400

⑤ ₩5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고객에게 부여한 할인권의 개별판매가격을 추정한 뒤,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에 따라 거래가격을 할인권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 A의 개별판매가격과 계약 거래가격은 각각 ₩2,000이다. 할인권의 명목 할인율은 30%이지만, 모든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인 일반 할인율 10%를 제외한 추가 할인율 20%만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이다. 예상 추가 구매액은 ₩1,500이고 할인권의 예상 사용률은 80%이다. 구해야 할 값은 제품 판매 시 할인권에 배분하는 계약부채이다.

사용할 공식

할인권의 추정 개별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예상 추가 구매액 × 추가 할인율 × 예상 사용률
할인권 배분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가격 × 할인권의 개별판매가격제품의 개별판매가격+할인권의 개별판매가격
할인권은 별도의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하나의 수행의무로 보고, 거래가격을 제품과 할인권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고객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10% 할인을 제외하면 할인권의 추가 할인율은 30%-10%=20%이다.
2. 할인권의 추정 개별판매가격은 ₩1,500×20%×80%=₩240이다.
3. 할인권에 배분하는 거래가격은 다음과 같다.

$₩2{,}000 \times \frac{₩240}{₩2{,}000 + ₩240} = ₩214.285\ldots$

따라서 원 단위 선지에 맞춘 계약부채는 ₩214이다.

선지 판단

① O —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으로 배분한 계약부채는 약 ₩214이므로 옳다.
② X — ₩240은 할인권의 추정 개별판매가격일 뿐 계약 거래가격 중 할인권에 배분된 금액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2,000×₩240/(₩2,000+₩240)을 적용한 약 ₩214이다.
③ X — ₩305는 일반 할인 10%를 빼지 않고 명목 할인율 30% 전부를 중요한 권리로 보아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즉 할인권을 ₩1,500×30%×80%=₩360으로 잘못 추정하면 ₩2,000×₩360/(₩2,000+₩360)≒₩305가 된다. 올바른 추가 할인율은 20%이고 배분액은 약 ₩214이다.
④ X — ₩400은 구매 한도 ₩2,000에 추가 할인율 20%를 단순 적용한 최대 할인액으로, 예상 구매액 ₩1,500과 사용률 80% 및 상대적 배분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할인권의 개별판매가격을 ₩240으로 추정한 뒤 약 ₩214를 배분한다.
⑤ X — ₩500은 할인권의 올바른 추정 개별판매가격 ₩240이나 상대적 배분 계산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올바른 계약부채는 ₩2,000×₩240/(₩2,240)≒₩214이다.

오답 포인트

명목 할인율 30%를 그대로 쓰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일반 판촉 할인 10%는 할인권이 없어도 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권리는 추가 할인 20%뿐이다. 또한 ₩240은 할인권의 개별판매가격 추정치이고, 실제 계약부채는 이를 이용해 거래가격 ₩2,000을 상대적으로 배분한 ₩214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객 선택권 문제는 먼저 일반 고객 할인율을 제외해 추가 할인율을 구하고, 예상 구매액과 예상 사용률을 반영해 선택권의 개별판매가격을 추정한 뒤,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으로 최초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암기 포인트

할인권 배분은 '추가 할인만 추정 → 사용 가능성 반영 → 상대적 개별판매가격 배분'의 순서이다.

NoteBase

문 9.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을 가산한 금액이다.

②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때 그 계약이 실질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정상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간의 차이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③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만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④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원재료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더라도 해당 원재료를 현행대체원가로 측정된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재고자산의 매입원가, 후불취득의 금융요소,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원재료 평가 및 평가손실 환입 기준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매입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원가를 포함하되 매입할인·리베이트 등은 차감한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 완성원가와 예상 판매비용을 뺀 금액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을 가산'한다는 부분이다. 매입가격, 환급되지 않는 수입관세·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및 직접 관련 원가는 가산하지만, 매입할인·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정상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부분이다. 후불계약에 실질적인 금융요소가 있으면 그 차이는 금융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확정판매계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한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한다는 부분이다. 해당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하며, 계약수량을 초과하여 보유한 재고자산만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원재료를 감액한다는 것이다. 완성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는 원가 이하로 감액하지 않는다.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완성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며, 이때 현행대체원가가 그 순실현가능가치의 최선의 측정치가 될 수 있다.
⑤ O — 감액 원인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환입액은 최초 감액액을 한도로 하므로 환입 후 장부금액은 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매입 관련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리베이트까지 가산하는 함정이고, ②는 금융요소를 재고자산 원가와 혼동하게 한다. ③은 확정계약 수량에는 계약가격을 쓴다는 예외를, ④는 완성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는 조건을 놓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입원가에서는 할인·리베이트의 차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장기 후불의 금융요소는 이자비용으로 분리한다. 순실현가능가치는 보유 목적에 따라 확정계약 수량에는 계약가격, 초과 수량에는 일반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원재료 감액은 완성제품의 예상 판매가가 원가를 회수하는지부터 판단하고, 환입은 최초 감액액을 한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리베이트는 차감, 금융요소는 이자, 확정계약은 계약가격, 원재료 평가는 완성제품 기준, 환입은 최초 감액액 한도이다.

NoteBase

문 10. 20x1년 초 설립된 (주)세무는 단일상품만 판매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에 대하여 가중평균법(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고, 기말 장부상재고와 실제재고를 함께 확인한다. (주)세무의 20x1년도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110이며, 20x1년도 재고자산평가손실은 ₩2,960일 때, (주)세무가 20x1년도 재무제표에 보고할 매출원가는? (단, 감모의 80%는 정상감모이며,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일자	적요	수량	단위당 원가
1월 10일	매입	300개	₩100
3월 20일	매출	200	-
6월 15일	매입	300	120
10월 16일	매입	400	130
12월 7일	매출	400	-

① ₩70,800

② ₩71,508

③ ₩73,632

④ ₩76,592

⑤ ₩77,3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실지재고조사법의 가중평균 단가를 구한 뒤 재고감모를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로 구분하고,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만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매입수량은 1,000개이고 매입원가는 118,000원이다. 판매수량은 600개이므로 장부상 기말수량은 400개이다. 기말 순실현가능가치는 단위당 110원이고 평가손실은 2,960원이다. 감모수량의 80%는 정상감모이며,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가중평균 단가:
(300×100+300×120+400×130)/(300+300+400)=118원
실제 기말수량:
(2,960)/(118-110)=370개
보고할 매출원가:
판매분 원가+정상감모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
실지재고조사법의 가중평균법은 판매가능상품의 총원가를 총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구한다. 평가손실은 실제 기말재고의 단위당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의 차액이므로, 주어진 평가손실을 단위당 평가차액으로 나누면 실제 기말수량을 역산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가중평균 단가는 118원이다.
2. 판매분 원가는 600×118=70,800원이다.
3. 실제 기말수량은 2,960÷(118-110)=370개이다. 따라서 감모수량은 400-370=30개이다.
4. 정상감모수량은 30×80\%=24개, 비정상감모수량은 6개이다. 정상감모손실은 24×118=2,832원이며, 비정상감모손실 708원은 기타비용이다.
5. 매출원가는 70,800+2,832+2,960=76,592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70,800원은 판매된 600개의 원가만 계산한 금액으로 정상감모손실 2,832원과 재고자산평가손실 2,960원을 누락하였다. 올바르게는 두 손실을 포함한 76,592원이다.
② X — 71,508원은 판매분 원가 70,800원에 비정상감모손실 708원을 더한 금액이다.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하고, 매출원가에는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더하여 76,592원으로 계산한다.
③ X — 73,632원은 판매분 원가 70,800원에 정상감모손실 2,832원만 더하여 평가손실 2,96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평가손실까지 포함한 76,592원이다.
④ O — 판매분 원가 70,800원, 정상감모손실 2,832원, 재고자산평가손실 2,960원을 합한 76,592원과 일치한다.
⑤ X — 77,300원은 76,592원에 비정상감모손실 708원까지 더한 금액이다.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이므로 이를 제외한 76,592원이 매출원가이다.

오답 포인트

평가손실 2,960원을 단순히 매출원가에 더하는 데서 끝내면 실제 기말수량과 감모수량을 찾지 못한다.
평가손실을 단위당 평가차액 8원으로 나누어 실제 기말수량 370개를 먼저 구해야 한다. 또한 감모손실 전액이 아니라 정상감모분만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감모분은 기타비용으로 분리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중평균 단가 계산 → 장부상 기말수량 계산 → 평가손실로 실제 기말수량 역산 → 감모수량을 정상·비정상으로 구분 → 판매분 원가에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만 가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상감모와 재고평가손실은 매출원가, 비정상감모는 기타비용이다.

NoteBase

문 11. (주)세무는 20x1년 12월 말에 다음의 자산집단을 매각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하였고, 이는 매각예정의 분류기준을 충족한다. 처분자산집단에 속한 자산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한편, (주)세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시점에서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를 ₩4,000으로 추정하였다. 20x1년 12월 말 손상차손 배분 후,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II의 장부금액은?

구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12월 말의 장부가액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에 재측정한 장부가액
재고자산	₩1,100	₩1,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300	1,000
유형자산 I (재평가액으로 표시)	1,200	1,000
유형자산 II (원가로 표시)	3,400	3,000
영업권	1,000	1,000
합 계	₩8,000	₩7,000

① 재고자산: ₩500 / 유형자산 II : ₩1,500

② 재고자산: ₩500 / 유형자산 II : ₩2,500

③ 재고자산: ₩500 / 유형자산 II : ₩3,000

④ 재고자산: ₩1,000 / 유형자산 II : ₩1,500

⑤ 재고자산: ₩1,000 / 유형자산 II : ₩2,5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를 초과할 때 손상차손을 영업권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측정범위에 포함되는 비유동자산에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매각예정 분류 직전 재측정 장부금액 합계는 7,000원이고 순공정가치는 4,000원이므로 총 손상차손은 3,000원이다. 재고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각각의 기준서로 측정하므로 이 손상차손의 배분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권 1,000원에 먼저 배분한 뒤 남은 2,000원을 유형자산 I 1,000원과 유형자산 II 3,000원에 배분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총 손상차손=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순공정가치

자산별 배분액=남은 손상차손×해당 자산 장부금액배분대상 자산 장부금액 합계

손상차손은 영업권에 우선 배분한 뒤 측정범위에 포함되는 비유동자산에 비례 배분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총 손상차손은 7,000원 - 4,000원 = 3,000원이다.
2. 영업권 1,000원에 먼저 배분하면 남은 손상차손은 2,000원이다.
3. 유형자산 I과 유형자산 II의 배분비율은 1,000 : 3,000 = 1 : 3이다.
4. 유형자산 II의 손상차손은 2,000원 × 3,000 / 4,000 = 1,500원이다. 따라서 유형자산 II의 장부금액은 3,000원 - 1,500원 = 1,500원이다.
5. 재고자산은 이 손상차손을 배분받지 않으므로 장부금액 1,000원을 유지한다.

선지 판단

① X - 재고자산 500원이 틀렸다. 재고자산은 처분자산집단 손상차손의 배분대상이 아니므로 올바르게는 재고자산 1,000원, 유형자산 II 1,500원이다.
② X - 재고자산 500원과 유형자산 II 2,500원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재고자산 1,000원, 유형자산 II 1,500원이다.
③ X - 재고자산 500원과 유형자산 II 3,000원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재고자산 1,000원, 유형자산 II 1,500원이다.
④ O - 재고자산은 1,000원을 유지하고, 유형자산 II는 남은 손상차손 중 1,500원을 배분받아 1,500원이 된다.
⑤ X - 유형자산 II 2,500원이 틀렸다. 유형자산 II에 배분되는 손상차손은 1,500원이므로 올바르게는 재고자산 1,000원, 유형자산 II 1,5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재고자산도 처분자산집단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상차손을 함께 배분하면 ①~③처럼 재고자산을 잘못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영업권에 먼저 배분한 뒤 남은 2,000원만 유형자산 I과 II에 1 : 3으로 나누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자산을 해당 기준서에 따라 재측정하고, 처분자산집단 전체 손상차손을 계산한다. 그다음 배분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빼고 영업권 우선 배분, 나머지 비유동자산 비례 배분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개별 재측정 → 전체 손상 계산 → 영업권 우선 → 대상 비유동자산 비례 배분이다.

NoteBase

문 12.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하고,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종속기업에게 리스하여 종속기업의 본사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건물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④ 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부분별로 나누어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⑤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라면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또는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투자부동산의 최초 측정, 연결재무제표상 분류, 복합 용도 부동산의 분류, 공정가치모형의 계속 적용 및 보상금 인식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재화·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는 자가사용부동산과 구별한다. 하나의 부동산을 용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으면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투자부동산의 손상·멸실·포기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O — 후불조건 취득 시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이는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O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임대한 건물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투자부동산이 될 수 있지만,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종속기업이 사용하는 자가사용부동산이므로 연결재무제표상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④ X — 틀린 표현은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는 부분이 중요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이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생산·공급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자가사용 부분이 중요하면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⑤ O —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해 온 투자부동산은 비교 가능한 시장거래가 줄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어도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측정은 처분하거나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할 때까지 이어진다.

오답 포인트

④는 '분리 매각 불가능'이라는 조건만 보고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기 쉽도록 만든 선지이다. 결정적인 표현은 자가사용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준은 중요하더라도가 아니라 경미한 경우에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합 용도 부동산은 먼저 부분별 분리 매각 가능 여부를 본다. 분리 가능하면 부분별로 회계처리하고, 분리 불가능하면 생산·공급·관리목적의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한지를 확인한다. 경미할 때만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복합 용도·분리 불가: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해야 전체가 투자부동산이다.

NoteBase

문 13.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④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인식하므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내부창출 영업권, 인식 시점의 판단, 법적 권리에 기초한 내용연수, 개별 취득원가의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형자산의 원가는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그 상태에 이른 뒤 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면서 발생하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 매출이나 용역수익뿐 아니라 원가절감 및 자산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② O.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기업이 통제하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도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 O.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은 최초 인식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증거로 평가하며, 내부 증거보다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④ O.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에서 생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상사용기간이 더 짧으면 그 짧은 기간을 내용연수로 한다.
⑤ X. 틀린 부분은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이다. 개별 취득 무형자산의 원가 인식은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운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중단되므로, 그 이후 사용 또는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의도한 방식으로 운용 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라는 원가 인식의 종료 시점을 제시한 뒤, 오히려 그 이후의 사용·재배치 원가까지 포함된다고 바꾸어 놓았다.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원가와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뒤 발생하는 원가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취득 관련 지출이 나오면 먼저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되는지를 판단한다. 그 상태에 이르기 전의 직접 관련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그 이후의 사용·재배치 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무형자산 원가의 마감선은 '의도한 방식으로 운용 가능한 상태'이다. 마감선 이후의 사용·재배치 원가는 취득원가가 아니다.

NoteBase

문 14.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0(잔존가치 ₩2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20x1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각각 ₩1,800으로 동일하였으나, 20x2년 말 공정가치는 ₩1,300이고 회수가능액은 ₩1,100으로 자산손상이 발생하였다.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① ₩360

② ₩420

③ ₩460

④ ₩540

⑤ ₩64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재평가감소 및 손상차손을 기존 재평가잉여금과 당기손익에 배분하여 당기비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2,000
잔존가치: ₩2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20×1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 각각 ₩1,800
20×2년 말 공정가치: ₩1,300
20×2년 말 회수가능액: ₩1,100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정액법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 대상 장부금액 - 잔존가치) ÷ 잔여내용연수
손상차손 = 손상검사 직전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재평가자산의 가치 감소는 같은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그 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초과액만 당기손익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년 감가상각비는 (₩2,000 - ₩200) ÷ 5년 = ₩360이다. 따라서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1,640이다.
2. 20×1년 말 공정가치 ₩1,800으로 재평가하므로 재평가잉여금은 ₩1,800 - ₩1,640 = ₩160이다. 회수가능액도 ₩1,800이므로 손상은 없다.
3. 20×2년 감가상각비는 재평가금액을 기준으로 (₩1,800 - ₩200) ÷ 잔여 4년 = ₩400이다.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1,400이다.
4. 20×2년 말 공정가치 ₩1,300으로 재평가하면 ₩100의 재평가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기존 재평가잉여금에서 차감되므로 재평가잉여금은 ₩60이 남고 당기손익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재평가 후 장부금액 ₩1,300을 회수가능액 ₩1,100으로 낮추므로 손상차손은 ₩200이다. 이 중 남은 재평가잉여금 ₩60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초과액 ₩140은 당기손익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6. 20×2년도 당기비용은 감가상각비 ₩400 + 당기손익 손상차손 ₩140 = ₩540이다.

선지 판단

① X — ₩360은 최초 원가를 기준으로 한 연간 감가상각비일 뿐이다. 20×2년에는 재평가금액 기준 감가상각비와 당기손익 손상차손을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540이다.
② X — ₩420은 최초 원가 기준 감가상각비 ₩360에 남은 재평가잉여금 ₩60을 잘못 더한 값이다. 재평가잉여금 감소는 당기비용이 아니며, 올바른 금액은 ₩540이다.
③ X — ₩460은 재평가금액 기준 감가상각비 ₩400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60을 잘못 더한 값이다. 당기손익에 인식되는 손상차손은 ₩140이므로 올바른 금액은 ₩540이다.
④ O — 감가상각비 ₩400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손상차손 ₩140의 합계가 ₩540이므로 옳다.
⑤ X — ₩640은 올바른 당기비용 ₩540에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할 20×2년 재평가감소 ₩100을 다시 당기비용으로 더한 값이다. 올바른 금액은 ₩540이다.

오답 포인트

20×2년 감가상각비를 최초 원가 기준 ₩360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20×1년 말 재평가 후에는 재평가금액 ₩1,800과 잔존가치 ₩200을 잔여내용연수 4년에 배분하여 ₩400을 계산한다. 또한 가치 감소액 전부가 당기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재평가잉여금 ₩160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평가자산의 당기비용은 먼저 재평가금액 기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뒤, 기말 가치 감소액을 기존 재평가잉여금으로 우선 흡수하고 남은 초과액만 당기손익에 더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평가 후 감가상각은 재평가금액 기준이고, 재평가자산의 감소는 재평가잉여금 우선·초과액만 당기손익이다.

NoteBase

문 15.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전액 차입하여 기계장치를 ₩50,000에 구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차입금은 20x5년 12월 31일에 상환해야 하며, 매년 말에 연 1% 이자율로 계산한 액면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주)세무가 구입한 기계장치에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추정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1년 1월 1일 구입당시의 시장이자율은 10%이다. (주)세무가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정부보조금은 전액 기계장치의 구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자산)차감법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5	0.6209	3.7908

① ₩10,469

② ₩10,607

③ ₩11,194

④ ₩12,807

⑤ ₩13,294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정부의 저리대출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최초 장부금액과 정부보조금을 구한 뒤, 원가차감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20x3년 이자비용을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차입금 액면금액은 ₩50,000이고 매년 지급하는 액면이자는 ₩500(₩50,000 × 1%)이다. 만기는 5년, 시장이자율은 10%이며, 5년 단일금액 현가계수는 0.6209, 정상연금 현가계수는 3.7908이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이고 정액법을 적용한다.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사용할 공식

차입금 최초 장부금액은 PV=F×단일금액 현가계수+C×정상연금 현가계수로 구한다. 정부보조금은 차입금 액면금액과 최초 장부금액의 차이이다. 원가차감법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정부보조금-잔존가치)/내용연수이고, 각 연도 이자비용은 기초 차입금 장부금액×유효이자율이다. 저리대출은 최초에 시장이자율로 할인하고 이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매년 액면이자: ₩50,000 × 1% = ₩500이다.
2. 차입금 최초 장부금액: ₩50,000 × 0.6209 + ₩500 × 3.7908 = ₩32,940.4이다.
3. 정부보조금: ₩50,000 - ₩32,940.4 = ₩17,059.6이다.
4. 원가차감 후 기계장치 장부금액: ₩50,000 - ₩17,059.6 = ₩32,940.4이고, 연간 감가상각비는 ₩32,940.4 / 5년 = ₩6,588.08이다.
5. 20x1년 말 차입금 장부금액: ₩32,940.4 + ₩3,294.04 - ₩500 = ₩35,734.44이다.
6. 20x2년 말 차입금 장부금액: ₩35,734.44 + ₩3,573.444 - ₩500 = ₩38,807.884이다.
7. 20x3년 이자비용: ₩38,807.884 × 10% = ₩3,880.7884이다.
8. 20x3년 당기비용: 감가상각비 ₩6,588.08 + 이자비용 ₩3,880.7884 = ₩10,468.8684이며,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10,469이다.

선지 판단

① O — 20x3년 감가상각비 ₩6,588.08과 이자비용 ₩3,880.7884의 합계는 반올림하여 ₩10,469이므로 옳다.
② X — '20x3년 당기비용은 ₩10,607'이라는 금액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감가상각비와 20x3년 유효이자비용을 합한 ₩10,469이다.
③ X — '20x3년 당기비용은 ₩11,194'라는 금액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차입금 장부금액을 유효이자율법으로 20x2년 말까지 갱신한 뒤 구한 이자비용을 사용하여 ₩10,469이다.
④ X — '20x3년 당기비용은 ₩12,807'이라는 금액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정부보조금을 자산 원가에서 차감한 순액 ₩32,940.4를 감가상각하여 계산한 ₩10,469이다.
⑤ X — '20x3년 당기비용은 ₩13,294'라는 금액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액면이자 ₩500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이자율 10%로 산정한 20x3년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합한 ₩10,469이다.

오답 포인트

액면이자율 1%는 실제 현금 지급액 ₩500을 정하는 이율이고, 이자비용은 시장이자율인 유효이자율 10%로 계산한다. 또한 20x3년 이자비용은 최초 장부금액이 아니라 20x2년 말까지 상각한 차입금 장부금액에 10%를 곱한다. 감가상각비는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기계장치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 저리대출 문제에서는 먼저 시장이자율로 차입금의 현재가치를 구하고, 액면금액과의 차이를 정부보조금으로 분리한다. 그다음 표시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유효이자율법으로 해당 연도의 이자비용을 구해 당기비용을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저리대출은 '현금이자 1%, 이자비용 10%'로 구분하고, 원가차감법에서는 '취득원가 - 보조금'을 감가상각한다.

NoteBase

문 16. (주)세무는 20x1년 4월 1일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20x2년 10월 31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주)세무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특정차입금 중 ₩30,000을 연 2% 이자지급조건의 정기예금에 20x1년 5월 1일부터 20x1년 7월 31일까지 예치하였다. (주)세무가 20x1년도와 20x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분	20×1.4.1.	20×1.11.1.	20×2.2.1.	20×2.7.1.
공사대금 지출액	₩100,000	₩30,000	₩20,000	₩20,000

종류	차입금액	차입기간	이자율
특정차입금A	₩90,000	20×1.4.1.～20×2.10.31.	3%
일반차입금B	60,000	20×1.5.1.～20×2.8.30.	5%
일반차입금C	30,000	20×1.9.1.～20×2.4.30.	10%

① 20×1년: ₩3,075 / 20×2년: ₩5,250

② 20×1년: ₩3,075 / 20×2년: ₩5,550

③ 20×1년: ₩4,875 / 20×2년: ₩4,875

④ 20×1년: ₩4,875 / 20×2년: ₩5,250

⑤ 20×1년: ₩4,875 / 20×2년: ₩5,55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특정차입금의 실제 차입원가에서 일시운용수익을 차감하고, 특정차입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연평균지출액에는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되 일반차입금의 실제 이자비용을 한도로 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1년 자본화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이고, 20×2년 자본화기간은 1월 1일부터 공사완료일인 10월 31일까지 10개월이다.

특정차입금 A는 90,000원, 연 3%이고, 그중 30,000원을 20×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연 2%로 예치하였다.

일반차입금 B와 C의 연평균잔액은 두 연도 모두 각각 $60{,}000 \times \frac{8}{12} = 40{,}000$원과 $30{,}000 \times \frac{4}{12} = 10{,}000$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은 특정차입금 이자비용-일시운용수익이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일반차입금 연평균잔액이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일반차입금 관련 연평균지출액×자본화이자율과 해당 기간의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중 작은 금액이다.
적격자산에 직접 관련된 특정차입금과 그 밖의 일반차입금이 함께 있으므로 두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두 연도의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은 각각 $60{,}000 \times 5\% \times \frac{8}{12} + 30{,}000 \times 10\% \times \frac{4}{12} = 3{,}000$원이다. 따라서 자본화이자율은 $\frac{3{,}000}{40{,}000 + 10{,}000} = 6\%$이다.

2. 20×1년
특정차입금 이자비용은 $90{,}000 \times 3\% \times \frac{9}{12} = 2{,}025$원이고, 일시운용수익은 $30{,}000 \times 2\% \times \frac{3}{12} = 150$원이다.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은 1,875원이다.
공사대금의 연평균지출액은 $100{,}000 \times \frac{9}{12} + 30{,}000 \times \frac{2}{12} = 80{,}000$원이다. 특정차입금의 순연평균액은 $90{,}000 \times \frac{9}{12} - 30{,}000 \times \frac{3}{12} = 60{,}000$원이므로 일반차입금 관련 연평균지출액은 20,000원이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20{,}000 \times 6\% = 1{,}200$원이다.
따라서 20×1년 자본화 차입원가는 $1{,}875 + 1{,}200 = 3{,}075$원이다.

3. 20×2년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은 $90{,}000 \times 3\% \times \frac{10}{12} = 2{,}250$원이다.
공사대금의 연평균지출액은 $100{,}000 \times \frac{10}{12} + 30{,}000 \times \frac{10}{12} + 20{,}000 \times \frac{9}{12} + 20{,}000 \times \frac{4}{12} = 130{,}000$원이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 전기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차입금 연평균액 $90{,}000 \times \frac{10}{12} = 75{,}000$원을 차감하면 일반차입금 관련 연평균지출액은 55,000원이다. 여기에 6%를 적용한 3,300원은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3,000원을 초과하므로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3,000원이다.
따라서 20×2년 자본화 차입원가는 $2{,}250 + 3{,}000 = 5{,}25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20×1년 3,075원, 20×2년 5,250원으로 계산 결과와 모두 일치한다.
② X — '20×2년 5,550원'은 일반차입금 계산액 3,300원을 그대로 더하여 실제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3,000원의 한도를 무시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20×2년 5,250원'이다.
③ X — '20×1년 4,875원 / 20×2년 4,875원'은 두 연도의 자본화기간·지출시점·차입원가 한도를 반영한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20×1년 3,075원 / 20×2년 5,250원'이다.
④ X — '20×1년 4,875원'이 틀렸다. 20×1년에는 특정차입금 일시운용수익 150원을 차감하고 일반차입금 관련 연평균지출액 20,000원에 6%를 적용하므로, 올바르게는 '20×1년 3,075원 / 20×2년 5,250원'이다.
⑤ X — '20×1년 4,875원 / 20×2년 5,550원'이 모두 틀렸다. 20×1년은 일시운용수익을 차감해야 하고, 20×2년은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을 한도로 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20×1년 3,075원 / 20×2년 5,250원'이다.

오답 포인트

20×1년에는 특정차입금의 예치기간 3개월에 대한 일시운용수익 150원을 반드시 차감한다. 20×2년에는 일반차입금 관련 연평균지출액에 6%를 적용하면 3,300원이 나오지만,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은 3,000원이므로 300원을 자본화할 수 없다. 또한 문제에서 전기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연평균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을 놓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연도별 자본화기간을 월할 계산하고, 특정차입금은 실제 이자비용에서 일시운용수익을 차감한다. 이어서 일반차입금 관련 연평균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한 뒤, 그 금액이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을 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특정차입금은 '이자비용−일시운용수익', 일반차입금은 '연평균지출액×자본화이자율, 단 실제 이자비용 한도'이다.

NoteBase

문 17. (주)세무는 20x1년 초에 한정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3년 동안 품질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20x1년 중 실제 발생한 품질보증비는 ₩10,000이다. (주)세무는 기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최선의 추정치 개념을 사용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주)세무는 이 제품의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20x1년 말에 20x2년 및 20x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질보증비 및 예상확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주)세무는 20x2년 및 20x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질보증비에 대해 설정하는 충당부채를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세무는 20x2년도에 ₩1,000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세무의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제품보증충당부채는?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20x2년과 20x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질보증비는 각 회계연도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20×2년		20×3년	
품질보증비	예상확률	품질보증비	예상확률
₩1,800	20%	₩3,000	30%
3,000	50%	4,000	60%
7,000	30%	5,000	10%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1	0.9091
2	0.8264
3	0.7513

① ₩6,360

② ₩6,740

③ ₩7,360

④ ₩7,740

⑤ ₩8,36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대가치로 측정한 연도별 품질보증비에 각 지급 시점의 현가계수를 적용하여 보고기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20×2년 품질보증비의 확률가중 기대값과 1년 현가계수 0.9091을 사용한다.
20×3년 품질보증비의 확률가중 기대값과 2년 현가계수 0.8264를 사용한다.
20×1년에 이미 발생한 품질보증비 ₩10,000은 보고기간 말 이후의 예상 지출이 아니므로 기말 충당부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년 예상 영업손실 ₩1,000은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연도별 기대품질보증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기대품질보증비=Σ(예상 품질보증비×예상확률)
기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다음과 같다.
충당부채=Σ(연도별 기대품질보증비×해당 지급 시점의 현가계수)
가능한 지출액이 여러 개이고 각각의 확률이 주어졌으므로 확률가중 기대값을 구하며, 지출이 미래 회계연도 말에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의 현가계수로 할인한다.

계산 과정

1. 20×2년 기대품질보증비를 계산한다.
₩1,800 × 20% + ₩3,000 × 50% + ₩7,000 × 30% = ₩3,960
2. 20×2년 말 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3,960 × 0.9091 = ₩3,600.036 ≈ ₩3,600
3. 20×3년 기대품질보증비를 계산한다.
₩3,000 × 30% + ₩4,000 × 60% + ₩5,000 × 10% = ₩3,800
4. 20×3년 말 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3,800 × 0.8264 = ₩3,140.32 ≈ ₩3,140
5. 두 현재가치를 합산한다.
₩3,600 + ₩3,140 = ₩6,740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6,360은 연도별 기대값에 올바른 현가계수를 적용해 합산한 금액이 아니다. 틀린 금액 ₩6,360은 올바르게는 ₩6,740이다.
② O — 20×2년분 ₩3,600과 20×3년분 ₩3,140을 합한 ₩6,740과 일치한다.
③ X — ₩7,360은 계산된 두 미래 지출의 현재가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7,360은 올바르게는 ₩6,740이다.
④ X — ₩7,740은 올바른 충당부채 ₩6,740에 예상 영업손실 ₩1,000을 잘못 더한 금액이다.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올바르게는 ₩6,740이다.
⑤ X — ₩8,360은 확률가중·현재가치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8,360은 올바르게는 ₩6,740이다.

오답 포인트

20×1년에 이미 발생한 품질보증비 ₩10,000을 기말의 미래의무와 섞거나, 단순한 미래 영업손실 ₩1,000을 충당부채에 더하면 안 된다. 또한 20×2년 지급액에는 1년 현가계수, 20×3년 지급액에는 2년 현가계수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 특히 ④는 예상 영업손실을 더하도록 유도한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연도의 지출액을 확률로 가중하여 기대값을 구하고, 지급 시점별 현가계수를 각각 곱한 뒤 합산한다. 이미 발생한 지출과 현재의무가 없는 미래 영업손실은 기말 충당부채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충당부채는 '연도별 기대값 × 지급 시점별 현가계수'이며, 미래 영업손실은 충당부채가 아니다.

NoteBase

문 18. (주)세무는 20x1년 7월 1일에 순장부금액이 ₩7,000인 기계장치를 (주)국세의 기계장치(순장부금액 ₩8,000, 공정가치 ₩9,000)와 교환하면서 현금 ₩500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유형자산처분손실로 ₩1,000을 인식하였다. (주)세무는 20x1년 7월 1일에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설치장소 준비원가 ₩500과 설치원가 ₩500을 지출하고 즉시 사용하였다. 한편, (주)세무는 취득한 기계장치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각각 ₩500과 3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주)세무의 20x2년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단, 동 자산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고 (주)국세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고 가정한다.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① ₩1,750

② ₩2,000

③ ₩2,333

④ ₩2,917

⑤ ₩3,5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있는 유형자산 교환에서 취득원가를 구한 뒤, 연수합계법과 월할 계산을 함께 적용하여 회계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세무가 넘긴 기계장치의 순장부금액은 7,000원이고 처분손실은 1,000원이므로 그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6,000원이다. 여기에 추가 지급한 현금 500원과 설치장소 준비원가 및 설치원가 각 500원을 반영한다. 취득한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는 500원, 내용연수는 3년이며, 20x1년 7월 1일부터 연수합계법으로 월할 상각한다.

사용할 공식

교환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지급한 현금 + 직접 관련 원가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연수합계는 3 + 2 + 1 = 6이고, 각 연도의 상각률은 차례로 3/6, 2/6, 1/6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하며,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직접 관련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7,000원 - 1,000원 = 6,000원이다.
2.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최초 측정액은 6,000원 + 500원 = 6,500원이다.
3. 설치장소 준비원가와 설치원가를 더하면 취득원가는 6,500원 + 500원 + 500원 = 7,500원이다.
4. 감가상각대상금액은 7,500원 - 500원 = 7,000원이다.
5. 20x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내용연수 1년 차이므로 $7,000 \times 3/6 \times 6/12 = 1,750$원이다.
6. 20x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내용연수 2년 차이므로 $7,000 \times 2/6 \times 6/12 = 1,166.67$원이다.
7. 따라서 20x2년 감가상각비는 1,750원 + 1,166.67원 = 2,916.67원이며,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2,917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750원은 20x2년 상반기의 1년 차 상각액만 반영한 금액이다. '1,750원'은 틀린 값이며, 하반기의 2년 차 상각액까지 더한 2,917원이 옳다.
② X — 2,000원은 연수합계법과 월할 계산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2,000원'은 틀린 값이며, 1년 차와 2년 차에 걸친 월할 상각액의 합계인 2,917원이 옳다.
③ X — 2,333원은 감가상각대상금액 7,000원에 2년 차 상각률 2/6만 적용한 1년분 금액이다. '2,333원'은 틀린 값이며, 20x2년 상반기에는 1년 차 상각률 3/6, 하반기에는 2년 차 상각률 2/6을 각각 6개월씩 적용한 2,917원이 옳다.
④ O — 20x2년 상반기 1,750원과 하반기 1,166.67원을 합하면 2,916.67원이고, 반올림하면 2,917원이다.
⑤ X — 3,500원은 감가상각대상금액 7,000원에 1년 차 상각률 3/6을 적용한 12개월분 금액이다. '3,500원'은 틀린 값이며, 20x2년 중 1년 차에 속하는 기간은 6개월뿐이고 나머지 6개월은 2년 차 상각률을 적용하므로 2,917원이 옳다.

오답 포인트

취득일이 20x1년 7월 1일이므로 20x2년은 하나의 연수합계 상각률만 적용하는 해가 아니다. 20x2년 상반기는 1년 차, 하반기는 2년 차에 해당한다. 또한 설치장소 준비원가와 설치원가는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직접 관련 원가이므로 취득원가에서 누락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환손익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역산하고, 현금 지급액과 직접 관련 원가를 반영해 취득원가를 확정한다. 그다음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취득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상각연도별 개월 수로 나누어 각 연수합계 상각률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연수합계법의 상각연도는 회계연도가 아니라 사용 개시일부터 진행된다. 연도 중 취득 자산은 한 회계연도에 서로 다른 상각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NoteBase

문 19. (주)세무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0,000이며,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x1년도 기본주당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주당 액면금액 ₩5,000)이고, 유통우선주식수는 5,000주(주당 액면금액 ₩5,000)이다.
◯ 상기 우선주는 전환우선주로서 누적적이며 배당률은 10%이다.
◯ 3월 1일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8,000주의 주식배당을 의결하고 즉시 발행하였다.
◯ 4월 1일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4,000주가 증가하였다. 동 유상증자에 대한 주당 발행금액은 ₩5,000이며, 유상증자 직전 공정가치는 주당 ₩10,000이다. 발행금액 전액이 발행일에 납입완료되었다.
◯ 9월 1일에 자기주식 4,350주를 취득하여 20x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 12월 31일 상기 전환우선주 전액이 주식으로 전환청구되어 보통주 5,000주를 발행하였다.
◯ 기중에 전환된 전환우선주에 대해서는 전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한다.

① ₩375
② ₩384
③ ₩405
④ ₩500
⑤ ₩512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누적적 우선주배당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고, 주식배당·할인발행된 유상증자의 무상증자 요소·자기주식·전환일을 반영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분자: 당기순이익 10,000,000원에서 누적적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다. 우선주배당금은 5,000주 × 주당 액면금액 5,000원 × 배당률 10% = 2,500,000원이다.
분모: 주식배당은 기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소급하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유상증자는 무상증자 요소를 조정한다. 9월 1일 취득한 자기주식은 그날부터 차감한다. 12월 31일 전환으로 발행한 보통주 5,000주는 당해 연도의 가중기간이 0이므로 분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본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기본주당이익=당기순이익-누적적 우선주배당금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할인발행된 유상증자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조정계수=유상증자 직전 주당 공정가치이론적 권리락 주가
누적적 우선주는 배당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의 배당금을 보통주 귀속이익에서 차감하며, 유상증자에 무상증자 요소가 있으므로 유상증자 전 주식수를 소급 조정한다.

계산 과정

1. 주식배당 후 보통주식수는 10,000주 + 8,000주 = 18,000주이다. 주식배당은 무상증자이므로 기초부터 18,000주였던 것으로 본다.
2. 이론적 권리락 주가는 다음과 같다.
(18,000×10,000)+(4,000×5,000)22,000=9,090.909원
따라서 조정계수는 10,000/9,090.909 = 1.1이다.
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18,000×1.1×(3)/(12))+(22,000×(5)/(12))+(17,650×(4)/(12))=20,000주
9월 1일 이후 주식수 17,650주는 22,000주에서 자기주식 4,350주를 차감한 수치이다.
4. 보통주 귀속이익은 10,000,000원 - 2,500,000원 = 7,500,000원이다.
5. 기본주당이익은 다음과 같다.
7,500,000원20,000주=375원/주

선지 판단

① O — 계산된 기본주당이익이 ₩375이므로 옳다.
② X — ₩384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누적적 우선주배당금 2,500,000원을 차감한 7,500,000원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0,000주로 나누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375이다.
③ X — ₩405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유상증자의 무상증자 요소를 조정하고 자기주식을 기간가중한 분모는 20,000주이므로 올바른 금액은 ₩375이다.
④ X — ₩500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주식배당과 할인발행 유상증자의 소급조정 및 자기주식의 기간가중을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375이다.
⑤ X — ₩512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12월 31일 전환주식은 당해 연도 분모에 가중되지 않지만, 전환일까지의 누적적 우선주배당금은 분자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375이다.

오답 포인트

주식배당 8,000주를 3월 1일 이후에만 반영하거나, 할인발행 유상증자의 무상증자 요소를 누락하거나, 12월 31일 전환주식 5,000주를 1년치 분모에 넣으면 오답이 된다. 또한 누적적 전환우선주는 전환일까지의 우선주배당금 2,500,000원을 기본주당이익의 분자에서 차감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통주 귀속이익에서 누적적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다. 다음으로 주식배당은 소급조정하고, 할인발행 유상증자는 이론적 권리락 주가로 조정계수를 구한 뒤, 유상증자·자기주식·전환주식은 실제 유통기간만큼 월할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기본주당이익은 '누적적 우선주배당금은 분자에서 차감,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요소는 분모에서 소급조정'으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20. 중간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②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는 요약재무상태표, 요약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표, 요약현금흐름표이다.

③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④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의 측정은 연차재무자료의 측정에 비하여 추정치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구성요소와 작성·인식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간재무보고는 연차보고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대한 재무보고이며, 완전한 재무제표 또는 요약재무제표와 선별된 주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요약 형식의 최소 구성요소에는 요약재무상태표, 요약된 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표, 요약현금흐름표뿐 아니라 선별된 주석도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직전 연차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한다. 그래야 직전 연차재무보고와 비교 가능성이 유지된다.
② X — '최소한의 구성요소'에서 선별된 주석을 누락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요약재무상태표, 요약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표, 요약현금흐름표 및 선별된 주석을 포함해야 한다.
③ O —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이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중간보고는 직전 연차보고의 관련 정보를 갱신하는 성격을 가진다.
④ O — 중간기간 재무정보는 연차재무정보보다 짧은 기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측정 과정에서 추정치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클 수 있다. 중요성을 판단할 때 이러한 중간측정의 특성을 고려한다.
⑤ O — 계절적·주기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 말에 미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중간보고기간 말에도 미리 인식하거나 이연하지 않는다. 중간보고를 이유로 연차 기준과 다른 인식 시점을 만들 수 없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2번은 네 가지 요약재무제표만 나열하여 완전해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그러나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구성요소에는 '선별된 주석'도 반드시 들어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구성요소를 묻는 선지에서는 네 가지 요약재무제표와 선별된 주석이 모두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이어 연결기준은 직전 연차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수익 인식은 연차보고기간 말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중간 최소 구성은 '요약 재무제표 4종 + 선별된 주석'이다.

NoteBase

문 21.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주)대한리스로부터 기계장치(기초자산)를 리스하는 해지금지조건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리스개시일은 20x1년 1월 1일, 리스기간은 20x1년 1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 내재이자율은 연 10%, 고정리스료는 매년 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주)대한리스의 동 기계장치 취득금액은 ₩2,000,000으로 리스개시일의 공정가치이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4년,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세무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매수선택권을 ₩400,000에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하다. (주)대한리스가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수취하는 연간 고정리스료는? (단, 리스계약은 소액자산리스 및 단기리스가 아니라고 가정하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3	0.7513	2.4869
4	0.6830	3.1699

① ₩544,749

② ₩630,935

③ ₩683,373

④ ₩804,214

⑤ ₩925,055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금융리스에서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현재가치를 먼저 차감한 뒤, 나머지를 정상연금의 현재가치계수로 나누어 연간 고정리스료를 구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2,000,000원
리스기간: 3년
내재이자율: 연 10%
매년 말 지급하는 고정리스료: L
3년 후 매수선택권 행사가격: 400,000원
3기간 단일금액 현재가치계수: 0.7513
3기간 정상연금 현재가치계수: 2.4869
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므로 400,000원도 리스료에 포함한다. 매년 말 지급액에는 정상연금계수를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리스개시일의 공정가치는 연간 고정리스료와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과 같다.

$$2{,}000{,}000 = L \times 2.4869 + 400{,}000 \times 0.7513$$

고정리스료는 매년 말 3회 지급되므로 정상연금 현재가치계수 2.4869를 사용하고,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3년 후 한 번 지급되므로 단일금액 현재가치계수 0.7513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400{,}000 \times 0.7513 = 300{,}520$

2. 공정가치 중 연간 고정리스료가 충당해야 할 현재가치를 구한다.
$2{,}000{,}000 - 300{,}520 = 1{,}699{,}480$

3. 이를 정상연금 현재가치계수로 나눈다.
$L = \frac{1{,}699{,}480}{2.4869} = 683{,}372.873\cdots$

따라서 원 단위로 반올림한 연간 고정리스료는 683,373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544,749원을 적용하면 매수선택권 행사가격까지 포함한 지급액의 현재가치는 약 1,655,256원으로 공정가치 2,00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544,749'는 '₩683,373'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630,935원을 적용하면 지급액의 현재가치는 약 1,869,592원으로 공정가치보다 작다. '₩630,935'는 '₩683,373'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683,373원에 정상연금계수 2.4869를 곱하고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현재가치 300,520원을 더하면 반올림 전후 차이를 제외하고 2,000,000원이 된다.

④ X — 804,214원을 적용하면 지급액의 현재가치는 약 2,300,520원으로 공정가치를 초과한다. '₩804,214'는 '₩683,373'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925,055원을 적용하면 지급액의 현재가치는 약 2,601,039원으로 공정가치를 초과한다. '₩925,055'는 '₩683,373'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다는 조건을 놓치면 행사가격 400,000원의 현재가치를 리스료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 또한 연간 고정리스료는 매년 말 지급되므로 3기간 정상연금계수를, 3년 후 한 번 지급하는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에는 3기간 단일금액 현재가치계수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조건은 연간 고정리스료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스료 계산에서는 먼저 확정 지급액과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구분한다. 반복되는 기말 지급액에는 정상연금계수, 만기에 한 번 지급하는 금액에는 단일금액계수를 적용한 뒤 두 현재가치의 합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일치시킨다.

암기 포인트

상당히 확실한 매수선택권은 리스료에 포함한다. 매년 말 반복 지급은 정상연금, 만기 1회 지급은 단일금액으로 할인한다.

NoteBase

문 22. 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이다.

② 매 보고기간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며,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③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고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한다.

④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⑤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법인세회계에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과 측정, 당기법인세자산·부채의 상계요건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미사용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미래 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이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의 상계에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와 순액결제 또는 동시 결제 의도가 모두 필요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미사용 세액공제의 이월액 등과 관련하여 미래 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이다.
② O.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다시 검토하며, 미래 과세소득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인식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있는 경우와 결제 의도를 '또는'으로 연결한 부분이다. 상계하려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④ O. 과세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 또는 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⑤ O.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생기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두 상계요건을 각각 독립적인 선택요건처럼 보이게 한다. '상계권리'만 있거나 '순액·동시 결제 의도'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상계권리와 결제 의도가 모두 있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당기법인세자산·부채의 상계 선지에서는 먼저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확인하고, 이어 순액 결제 또는 자산 실현과 부채 결제의 동시 이행 의도를 확인한다. 두 요건 사이의 연결은 '그리고'이다.

암기 포인트

당기법인세 상계는 '법적 상계권리 + 순액·동시 결제 의도'이다.

NoteBase

문 23.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지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③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투자자와 채권자에게서 직접 추가 자원을 획득한 것이 아닌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 반영된 정보는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④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⑤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주요 이용자, 보고기업 가치와의 관계 및 재무보고의 한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반목적재무보고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주요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재무보고서는 기업가치 자체를 제시하는 평가보고서가 아니라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상당 부분 추정·판단·모형에 근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O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다. 다만 주요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③ O
소유주나 채권자로부터 자원을 직접 조달한 거래가 아니라 영업 등 재무성과로 생긴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기업이 스스로 순현금유입을 창출한 능력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거의 현금창출 성과를 이해하고 미래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④ X
틀린 표현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하고,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이다. 실제로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보고기업에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한다.

⑤ O
재무보고서는 경제현상을 완전히 정확하게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 반대로 서술하였다. 주요 이용자를 '직접 정보를 얻기 어려워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하는 외부 이용자'로 파악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반목적재무보고 문항에서는 먼저 주요 이용자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대여자·그 밖의 채권자인지 확인한다. 이어 직접 정보요구가 어렵다는 점, 기업가치 자체가 아니라 가치 추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재무보고가 추정·판단·모형에 근거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직접 요구는 어렵고 보고서 의존은 크다. 기업가치는 제시하지 않고 추정을 돕는다.

NoteBase

문 24. (주)세무는 20x1년 초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영업개시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20x3년 말 현재 (주)세무의 자본금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x4년 3월 말 주주총회에서 ₩600,000의 현금배당이 결의되었다. (주)세무의 보통주에 배분될 배당금은? (단, 과거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다.)

구분	1주당 액면금액	배당률	자본금	비고
보통주	₩1,000	2%	₩8,000,000	
우선주	₩1,000	3%	₩2,000,000	누적적, 5% 부분참가적

① ₩360,000

② ₩380,000

③ ₩400,000

④ ₩420,000

⑤ ₩44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누적적·부분참가적 우선주가 있을 때 미지급 누적배당, 당기 기본배당, 참가배당의 상한을 차례로 반영하여 보통주 배당금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보통주 자본금은 8,000,000원이고 배당률은 2%이다. 우선주 자본금은 2,000,000원이고 배당률은 3%이며, 누적적·5% 부분참가적이다. 20x1년 초 영업을 시작한 뒤 20x3년 말까지 배당하지 않았으므로 우선주 기본배당은 3개 연도분이 누적된다. 총 현금배당은 600,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우선주 3개 연도 누적 기본배당은 $2{,}000{,}000 \times 3\% \times 3 = 180{,}000$원이다.
보통주 기본배당은 $8{,}000{,}000 \times 2\% = 160{,}000$원이다.
우선주의 추가 참가배당 한도는 $2{,}000{,}000 \times (5\% - 3\%) = 40{,}000$원이다.
부분참가적 우선주는 당기의 총 배당률이 5%에 이를 때까지만 추가로 참가하므로 이 한도를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우선주에 3개 연도 누적 기본배당 180,000원을 우선 배분한다. 이 금액에는 과거 2개 연도분 120,000원과 당기 1개 연도분 60,000원이 포함된다.
2. 보통주에 기본배당 160,000원을 배분한다. 이때 남은 금액은 $600{,}000 - 180{,}000 - 160{,}000 = 260{,}000$원이다.
3. 남은 금액을 자본금 비율 8:2로 참가 배분하면 우선주는 40,000원, 보통주는 160,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우선주는 이 40,000원으로 당기 배당률 5%의 참가 한도에 도달한다.
4. 아직 남은 60,000원은 참가 한도에 도달한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에 배분한다.
5. 보통주 배당금은 $160{,}000 + 160{,}000 + 60{,}000 = 38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보통주에 360,000원을 배분하면 우선주 몫이 240,000원이 된다. 이는 누적 기본배당 180,000원 외에 참가배당을 60,000원 배분한 결과로, 우선주의 추가 참가 한도 40,000원을 20,000원 초과한다. 올바른 보통주 배당금은 380,000원이다.
② O — 우선주에는 누적 기본배당 180,000원과 참가배당 40,000원, 합계 220,000원이 배분된다. 따라서 보통주에는 $600{,}000 - 220{,}000 = 380{,}000$원이 배분된다.
③ X — 보통주 400,000원은 우선주에 200,000원만 배분한 금액이다. 이 경우 우선주의 추가 참가배당이 20,000원에 그쳐 5%의 참가 한도까지 배분되지 않는다. 올바른 보통주 배당금은 380,000원이다.
④ X — 보통주 420,000원은 우선주에 누적 기본배당 180,000원만 배분하고 참가배당 40,0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올바른 보통주 배당금은 380,000원이다.
⑤ X — 보통주 440,000원은 우선주 몫을 16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는 우선주가 우선하여 받을 3개 연도 누적 기본배당 180,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바른 보통주 배당금은 38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누적적’과 ‘5% 부분참가적’을 서로 다른 조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누적적 조건 때문에 먼저 3개 연도분 기본배당 180,000원을 계산하고, 부분참가적 조건 때문에 당기 우선주의 추가 참가배당은 3%에서 5%까지의 2%인 40,000원으로 제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누적적 참가우선주 문제는 미지급 누적배당을 먼저 배분한 뒤 보통주의 기본배당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참가시키되 우선주의 참가 상한을 적용한다. 상한에 도달한 뒤의 잔액은 보통주에 배분한다.

암기 포인트

누적은 과거 연도까지 더하고, 부분참가는 정해진 상한까지만 더한다.

NoteBase

문 25. (주)세무의 20x1년 재고자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매출원가가 ₩480,000일 때, 원재료 매입액은?

(1) 재고자산

	원재료	재공품	제품
20×1.1.1.	₩40,000	₩90,000	₩80,000
20×1.12.31.	60,000	100,000	120,000

(2) 원가자료

◯ 생산직근로자 급여 ₩110,000 ◯ 생산설비 보험료 ₩50,000

◯ 생산직관리자 급여 30,000 ◯ 영업사원 급여 20,000

◯ 공장건물 감가상각비 70,000 ◯ 본사건물 재산세 10,000

① ₩280,000

② ₩290,000

③ ₩330,000

④ ₩340,000

⑤ ₩53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매출원가에서 출발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 당기총제조원가, 직접재료원가를 차례로 역산한 뒤 원재료 매입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기말 재고는 원재료 40,000원·60,000원, 재공품 90,000원·100,000원, 제품 80,000원·120,000원이다. 매출원가는 480,000원이다.

직접노무원가는 생산직근로자 급여 110,000원이다. 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 보험료 50,000원, 생산직관리자 급여 30,000원, 공장건물 감가상각비 70,000원의 합계 150,000원이다. 영업사원 급여 20,000원과 본사건물 재산세 10,000원은 판매비와관리비이므로 제조원가에서 제외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기초제품+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제품
당기제품제조원가=기초재공품+당기총제조원가-기말재공품
당기총제조원가=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
직접재료원가=기초원재료+원재료매입액-기말원재료
재고자산은 기초재고를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는 원가흐름을 따르므로 이 공식들을 역순으로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당기제품제조원가는 480,000원-80,000원+120,000원=520,000원이다.
2. 당기총제조원가는 520,000원-90,000원+100,000원=530,000원이다.
3. 제조간접원가는 50,000원+30,000원+70,000원=150,000원이므로 직접재료원가는 530,000원-110,000원-150,000원=270,000원이다.
4. 원재료 매입액은 270,000원-40,000원+60,000원=29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280,000원은 역산한 원재료 매입액 290,000원과 다르다. 틀린 금액 280,000원은 올바르게는 290,000원이다.
② O — 원가흐름을 모두 역산하면 원재료 매입액은 290,000원이다.
③ X — 330,000원은 원재료 매입액이 아니다. 직접재료원가 270,000원에서 기초원재료 40,000원을 빼고 기말원재료 60,000원을 더하면 올바른 금액은 290,000원이다.
④ X — 340,000원은 원재료 매입액이 아니다.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영업사원 급여와 본사건물 재산세를 제외하여 계산한 올바른 금액은 290,000원이다.
⑤ X — 530,000원은 원재료 매입액이 아니라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를 합한 당기총제조원가이다. 원재료 매입액으로 고치면 29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530,000원은 계산 중간값인 당기총제조원가를 최종 답으로 착각하게 하는 선지이다. 또한 생산직관리자 급여는 간접노무원가로 제조간접원가에 포함하지만, 영업사원 급여와 본사건물 재산세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제외해야 한다. 원재료 공식에서는 기초원재료를 빼고 기말원재료를 더하여 매입액을 역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출원가에서 시작해 제품재고, 재공품재고, 제조원가 구성요소, 원재료재고의 순서로 한 단계씩 역산한다. 각 단계에서 정방향 공식의 기초재고는 더하고 기말재고는 빼며, 역산할 때에는 그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매출원가 → 제품제조원가 → 총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 원재료 매입액의 순서로 거꾸로 내려간다. 공장 관련 원가는 제조원가, 영업·본사 관련 원가는 판매비와관리비이다.

문 26. (주)세무는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고 있고,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배부하고 있다. 각 보조부문의 용역제공비율과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제조부문 P1과 P2가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이 각각 ₩231,250과 ₩418,750일 때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인 P1과 P2에 제공한 용역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사용 / 제공	보조부문		제조부문	
	S1	S2	P1	P2
S1	-	20%	40%	40%
S2	20%	-	?	?
부문원가	₩250,000	₩400,000	₩600,000	₩500,000

① P1: 20% / P2: 60%

② P1: 22.5% / P2: 57.5%

③ P1: 40% / P2: 40%

④ P1: 57.5% / P2: 22.5%

⑤ P1: 60% / P2: 2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상호배분법으로 두 보조부문의 총원가를 먼저 구한 뒤, 제조부문에 실제 배부된 금액을 이용하여 S2의 용역제공비율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S1의 자체원가는 250,000원이고 S2 원가의 20%를 배부받는다. S2의 자체원가는 400,000원이고 S1 원가의 20%를 배부받는다. S1은 총원가의 40%씩을 P1과 P2에 배부한다. S2의 P1·P2 제공비율을 각각 x, y라 하면 $x + y = 80\%$이다.

사용할 공식

S1과 S2의 상호배분 후 총원가를 각각 T_1, T_2라 하면 다음 연립방정식을 사용한다.

$T_1 = 250{,}000 + 0.2T_2$

$T_2 = 400{,}000 + 0.2T_1$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용역까지 서로의 총원가에 반영하므로 두 식을 동시에 푼다.

NoteBase

계산 과정

연립방정식을 풀면 다음과 같다.
$T_1 = 250{,}000 + 0.2(400{,}000 + 0.2T_1)$
$0.96T_1 = 330{,}000, \quad T_1 = 343{,}750$
$T_2 = 400{,}000 + 0.2(343{,}750) = 468{,}750$
P1이 받은 금액은 S1 배부액 137,500원과 S2 배부액의 합이므로 다음과 같다.
$343{,}750 \times 0.4 + 468{,}750x = 231{,}250$
$137{,}500 + 468{,}750x = 231{,}250, \quad x = 0.2 = 20\%$
마찬가지로 P2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343{,}750 \times 0.4 + 468{,}750y = 418{,}750$
$137{,}500 + 468{,}750y = 418{,}750, \quad y = 0.6 = 60\%$

선지 판단

① O — P1 20%, P2 60%를 적용하면 P1은 137,500원+93,750원=231,250원, P2는 137,500원+281,250원=418,750원을 배부받아 제시된 금액과 일치한다.
② X — P1 22.5%, P2 57.5%를 적용하면 배부액은 각각 242,968.75원과 407,031.25원이 되어 제시된 금액과 다르다. 올바르게는 P1 20%, P2 60%이다.
③ X — P1과 P2에 각각 40%를 적용하면 두 제조부문 모두 325,000원씩 배부받으므로 제시된 금액과 다르다. 올바르게는 P1 20%, P2 60%이다.
④ X — P1 57.5%, P2 22.5%를 적용하면 배부액은 각각 407,031.25원과 242,968.75원이 되어 제시된 금액과 다르다. 올바르게는 P1 20%, P2 60%이다.
⑤ X — P1 60%, P2 20%는 실제 비율을 서로 바꾼 값이므로 P1이 418,750원, P2가 231,250원을 배부받게 된다. 올바르게는 P1 20%, P2 60%이다.

오답 포인트

S2의 자체원가 400,000원만을 배부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상호배분법에서는 S2가 S1으로부터 받은 원가까지 포함한 총원가 468,750원을 사용한다. 또한 표의 행은 용역 제공부문, 열은 용역 사용부문이므로 P1과 P2의 비율을 뒤바꾸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호배분법 문제는 보조부문 총원가의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고, 각 제조부문 배부액에서 이미 알려진 보조부문의 배부액을 뺀 뒤 나머지 보조부문의 총원가로 나누어 미지의 용역비율을 구한다. 마지막에는 각 보조부문의 제공비율 합계가 100%인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상호배분법의 순서는 '보조부문 총원가를 연립방정식으로 확정 → 제조부문 배부액으로 비율 역산'이다.

NoteBase

문 27.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50%를 예정배부한다. (주)세무의 20x1년 매출액은 ₩100,000이며, 공장에서 20x1년에 발생한 원가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20x1년 말에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경우, 배부차이 조정후 매출총이익은?

◯ 재고자산 현황

	기초	기말
원 재 료	₩5,000	₩10,000
재 공 품	10,000	25,000
제 품	15,000	20,000

◯ 당기 중 원재료 구입액은 ₩40,000이다.
◯ 미지급임금의 기초잔액은 ₩10,000이며, 기말잔액은 ₩20,000이다.
◯ 20x1년에 지급한 임금은 ₩40,000이다.
◯ 공장에서 발생한 임금의 80%는 직접노무원가이다.
◯ 20x1년에 발생한 제조경비는 ₩15,000이며, 전액 제조간접원가이다.
◯ 20x1년의 배부차이 조정전 매출원가는 ₩70,000이다.

① ₩15,000
② ₩20,000
③ ₩25,000
④ ₩30,000
⑤ ₩35,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상원가계산에서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와 재고 흐름을 이용해 간접재료원가를 역산한 뒤, 실제 제조간접원가와 배부 제조간접원가의 차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임금 발생액은 지급액에 미지급임금의 증가액을 더한 50,000원이다. 이 중 80%인 40,000원이 직접노무원가이고, 나머지 10,000원이 간접노무원가이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50%를 예정배부하므로 배부액은 20,000원이다.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는 70,000원이며,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기초제품+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제품
당기제품제조원가=기초재공품+당기총제조원가-기말재공품
배부부족액=실제 제조간접원가-배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에는 이미 배부 제조간접원가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배부액보다 크면 그 배부부족액만큼 매출원가를 증가시킨다.

계산 과정

1. 당기제품제조원가를 역산한다.
70,000=15,000+당기제품제조원가-20,000
따라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75,000원이다.

2. 당기총제조원가를 역산한다.
75,000=10,000+당기총제조원가-25,000
따라서 당기총제조원가는 90,000원이다.

3. 임금원가와 배부 제조간접원가를 계산한다.
임금 발생액=40,000+20,000-10,000=50,000
직접노무원가=50,000×80\%=40,000
배부 제조간접원가=40,000×50\%=20,000

4. 직접재료원가와 간접재료원가를 구한다.
직접재료원가=90,000-40,000-20,000=30,000
원재료 사용액=5,000+40,000-10,000=35,000
따라서 간접재료원가는 35,000원에서 직접재료원가 30,000원을 뺀 5,000원이다.

5. 실제 제조간접원가와 배부부족액을 계산한다.
실제 제조간접원가=5,000+10,000+15,000=30,000
배부부족액=30,000-20,000=10,000

6. 조정 후 매출총이익을 계산한다.
조정 후 매출원가=70,000+10,000=80,000
매출총이익=100,000-80,000=20,000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15,000원은 계산된 조정 후 매출총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 제조간접원가 전액을 다시 매출원가에 더하면 이미 배부된 20,000원을 중복 반영하게 된다. 올바른 금액은 20,000원이다.
② O — 배부부족액 10,000원을 조정 전 매출원가 70,000원에 더하면 조정 후 매출원가는 80,000원이고, 매출총이익은 20,000원이다.
③ X — 25,000원은 간접재료원가 5,000원을 실제 제조간접원가에서 빠뜨려 배부부족액을 5,000원으로 잘못 계산할 때 나오는 금액이다. 올바른 금액은 20,000원이다.
④ X — 30,000원은 매출액 100,000원에서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 70,000원만 차감한 조정 전 매출총이익이다. 배부부족액 10,000원을 반영한 올바른 금액은 20,000원이다.
⑤ X — 35,000원은 배부부족액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배부액보다 10,000원 많으므로 매출총이익은 증가하지 않고 3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감소한다. 올바른 금액은 2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원재료 사용액 35,000원을 전부 직접재료원가로 보는 것이다.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와 재고 흐름을 이용하면 직접재료원가는 30,000원이므로, 차액 5,000원은 간접재료원가로서 실제 제조간접원가에 포함된다. 또한 배부부족은 매출원가를 증가시키고 매출총이익을 감소시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정 전 매출원가에서 당기제품제조원가와 당기총제조원가를 차례로 역산하고,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배부 제조간접원가를 분리한다. 그다음 실제 제조간접원가와 배부액을 비교하여 배부부족이면 매출원가에 더하고, 배부초과이면 매출원가에서 뺀다.

암기 포인트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배부액보다 크면 배부부족이다. 전액 매출원가 조정 시 배부부족은 매출원가 증가, 매출총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28.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해야 할 제조간접원가는 ₩81,600이고, 제품 A와 B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은 원가담당자가 분석한 활동원가에 관한 내용이다. (주)세무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제조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제품 A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제품 A	제품 B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50	₩25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60	90
단위당 직접노무시간	1시간	1시간

활동	활동원가	원가동인	원가동인 사용량	
			제품 A	제품 B
재료이동	₩21,000	이동횟수	50회	20회
작업준비	21,600	작업준비시간	80시간	100시간
검사	39,000	생산량	200단위	400단위

① ₩24.8

② ₩52

③ ₩86

④ ₩4,960

⑤ ₩17,2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직접노무원가 기준의 전통적 배부액과 활동별 원가동인을 사용하는 활동기준원가계산(ABC)의 배부액을 각각 구한 뒤, 제품 A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 증가액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 A: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60원, 생산량 200단위, 재료이동 50회, 작업준비시간 80시간
제품 B: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90원, 생산량 400단위, 재료이동 20회, 작업준비시간 100시간
활동원가: 재료이동 21,000원, 작업준비 21,600원, 검사 39,000원
검사의 원가동인은 생산량이며, 구해야 할 값은 제품 A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 증가액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존 배부액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제품 A 배부액=총 제조간접원가×제품 A 직접노무원가전체 직접노무원가
ABC에서는 각 활동원가에 제품 A의 원가동인 사용비율을 곱하여 활동별 배부액을 구하고 이를 합산한다.
제품마다 활동 소비 비율이 다르므로 하나의 직접노무원가 비율이 아니라 활동별 원가동인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전체 직접노무원가는 제품 A가 60원 × 200단위 = 12,000원, 제품 B가 90원 × 400단위 = 36,000원이므로 합계 48,000원이다.
2. 기존 방식에서 제품 A의 제조간접원가는 81,600원 × 12,000원 ÷ 48,000원 = 20,400원이며, 단위당 금액은 20,400원 ÷ 200단위 = 102원이다.
3. ABC에서 제품 A의 재료이동원가는 21,000원 × 50회 ÷ 70회 = 15,000원이다.
4. 제품 A의 작업준비원가는 21,600원 × 80시간 ÷ 180시간 = 9,600원이다.
5. 제품 A의 검사원가는 39,000원 × 200단위 ÷ 600단위 = 13,000원이다.
6. ABC에 따른 제품 A의 제조간접원가는 15,000원 + 9,600원 + 13,000원 = 37,600원이고, 단위당 금액은 37,600원 ÷ 200단위 = 188원이다.
7. 단위당 증가액은 188원 - 102원 = 86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24.8원은 기존 방식과 ABC 방식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 차이가 아니다. 올바른 증가액은 86원이다.
② X — 52원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단위당 금액 102원과 188원의 차이가 아니다. 올바른 증가는 52원이 아니라 86원이다.
③ O — ABC 단위당 제조간접원가 188원에서 기존 방식의 102원을 빼면 86원이 증가한다.
④ X — 4,960원은 제품 A의 총증가액이나 단위당 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위당 증가액으로 고치면 86원이다.
⑤ X — 17,200원은 제품 A 제조간접원가의 총증가액인 37,600원 - 20,400원이다. 문제는 단위당 증가액을 물으므로 17,200원을 200단위로 나눈 86원이 올바르다.

오답 포인트

⑤의 17,200원은 총 제조간접원가 증가액이므로 그대로 답으로 고르면 안 된다. 문항의 '단위당'을 반영하여 생산량 200단위로 한 번 더 나누어야 한다. 또한 ABC에서는 검사원가를 직접노무시간이 아니라 제시된 원가동인인 생산량으로 배부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존 방식의 총배부액과 단위당 배부액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ABC의 각 활동원가를 해당 원가동인 사용비율로 배부하여 단위당 금액을 구한다. 마지막에 '총액'과 '단위당 금액' 중 무엇을 묻는지 확인한 뒤 두 방식의 차이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ABC 배부액은 활동별 원가 × 해당 제품의 원가동인 사용비율이다. 단위당 차이를 묻는 경우 총차이를 생산량으로 나눈다.

NoteBase

문 29.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으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당기 생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 및 기말재공품에 포함된 전환원가가 각각 ₩65,000 및 ₩260,000일 때,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 기초재공품: 1,000단위 (전환원가 완성도 20%)
◯ 당기착수량: 7,000
◯ 당기완성량: 6,000
◯ 기말재공품: 2,000 (전환원가 완성도 40%)

① ₩1,950,000
② ₩2,080,000
③ ₩2,145,000
④ ₩2,210,000
⑤ ₩2,275,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가중평균법에서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와 완성품환산량을 이용하여 전환원가의 단위당 원가를 구한 뒤, 총전환원가에서 기초재공품 전환원가를 차감하여 당기 발생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당기완성량 6,000단위, 기말재공품 2,000단위, 기말재공품 전환원가 완성도 40%, 기초재공품 전환원가 65,000원, 기말재공품 전환원가 26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당기에 새로 발생한 전환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가중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 20%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완성품은 전환원가가 100% 완성된 것으로 본다.

사용할 공식

기말재공품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2,000×40\%=800단위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6,000+800=6,800단위
단위당 전환원가=기초재공품 전환원가+당기 발생 전환원가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공품 원가와 당기 발생 원가를 합산하여 전체 완성품환산량에 배분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2,000×40\%=800단위이다.
2. 기말재공품에 배부된 전환원가가 260,000원이므로 단위당 전환원가는 260,000÷800=325원이다.
3. 전체 전환원가는 6,800×325=2,210,000원이다.
4. 전체 전환원가는 기초재공품 전환원가와 당기 발생 전환원가의 합계이므로, 당기 발생 전환원가는 2,210,000-65,000=2,145,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950,000원은 6,000 × 325로 완성품에 배부된 전환원가만 계산한 값이다. 기말재공품까지 포함하여 당기 발생 전환원가를 구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2,145,000원이다.
② X — 2,080,000원은 당기 발생 전환원가 2,145,000원에서 기초재공품 전환원가 65,000원을 한 번 더 차감한 값이다. 기초재공품 전환원가는 총전환원가 2,210,000원에서 한 번만 차감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2,145,000원이다.
③ O — 총전환원가 2,210,000원에서 기초재공품 전환원가 65,000원을 차감하면 당기 발생 전환원가는 2,145,000원이다.
④ X — 2,210,000원은 기초재공품 전환원가와 당기 발생 전환원가를 합한 총전환원가이다. 문제에서 요구한 당기 발생액은 여기서 65,000원을 차감한 2,145,000원이다.
⑤ X — 2,275,000원은 총전환원가 2,210,000원에 기초재공품 전환원가 65,000원을 더한 값이다. 기초재공품 원가는 총전환원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하지 않고 차감하며, 올바른 금액은 2,14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④의 2,210,000원을 곧바로 당기 발생 전환원가로 보는 것이다. 이 금액은 가중평균법의 총전환원가이므로, 당기에 발생한 금액만 구하려면 이미 포함된 기초재공품 전환원가 65,000원을 차감해야 한다. 또한 기초재공품의 완성도 20%는 선입선출법 계산처럼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중평균법에서 기말재공품 원가가 주어지면 먼저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량으로 단위당 원가를 역산하고, 전체 완성품환산량에 곱하여 총원가를 구한 뒤 기초재공품 원가를 차감하면 당기 발생 원가가 된다.

암기 포인트

가중평균법의 총원가는 기초원가와 당기원가의 합계이며, 당기원가는 총원가에서 기초원가를 뺀 값이다.

NoteBase

문 30.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제품제조를 위해 원재료 A와 원재료 B가 사용되는데 원재료 A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원재료 B는 공정 완료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공정의 50%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다. 당기 생산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에 착수하여 당기에 완성된 제품이 7,000단위일 때, (주)세무의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당기 완성품원가는?

구 분	물량 (전환원가 완성도)
기초재공품	1,000단위(60%)
당기 착수	9,000
기말재공품	1,000(60%)

구 분	재료원가		전환원가
	원재료 A	원재료 B	
기초재공품	₩30,000	₩0	₩33,500
당기발생원가	180,000	80,000	255,000

① ₩466,500

② ₩523,500

③ ₩530,000

④ ₩533,500

⑤ ₩54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선입선출법에서 당기 작업량의 원가를 계산하고,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을 구분한 뒤 정상공손원가를 당기 합격품에 배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재공품은 1,000단위이고 당기 착수량은 9,000단위이므로 총 투입량은 10,000단위이다. 기초재공품 1,000단위가 완성되고 당기 착수·완성품이 7,000단위이므로 완성 합격품은 8,000단위이다. 기말재공품 1,000단위를 제외하면 실제 공손은 1,000단위이다.
검사는 공정 50% 시점에 이루어진다. 기초재공품은 기초에 이미 완성도 60%이므로 당기 검사 통과량에서 제외된다. 당기 착수·완성품 7,000단위와 기말재공품 1,000단위가 당기에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이므로 정상공손은 8, 000 × 10% = 800단위이고 비정상공손은 200단위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선입선출법의 원가요소별 당기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당기 단위당 원가=당기 발생원가당기 완성품환산량
공손품은 검사시점인 전환완성도 50%에서 발견되므로 원재료 A는 전량, 원재료 B는 0%, 전환원가는 50%만 포함한다. 정상공손원가는 당기에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에 배분한다.

계산 과정

1. 당기 완성품환산량은 원재료 A 9,000단위, 원재료 B 8,000단위, 전환원가 8,500단위이다.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 각각 $180,000/9,000 = 20$원, $80,000/8,000 = 10$원, $255,000/8,500 = 30$원이다.
2. 기초재공품 완성원가는 기초원가 63,500원에 원재료 B 10,000원과 잔여 전환원가 $1,000 \times 40\% \times 30 = 12,000$원을 더한 85,500원이다.
3. 당기 착수·완성품 7,000단위의 원가는 $7,000 \times (20 + 10 + 30) = 420,000$원이다.
4. 정상공손 800단위의 원가는 $800 \times (20 + 30 \times 50\%) = 28,000$원이다. 이를 당기 검사 통과 합격품 8,000단위에 배분하면 단위당 3.5원이다. 이 중 당기 완성품 7,000단위에 배분되는 정상공손원가는 $7,000 \times 3.5 = 24,500$원이고, 나머지 3,500원은 기말재공품에 배분된다.
5.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당기 완성품원가는 $85,500 + 420,000 + 24,500 = 53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466,500원은 기초재공품 완성원가 85,500원, 당기 착수·완성품원가 420,000원, 완성품에 배분할 정상공손원가 24,500원을 모두 합한 값이 아니다. 466,500원 → 올바르게는 530,000원이다.
② X. 523,500원은 정상공손원가를 검사 통과 합격품에 배분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완성품 배분액 24,500원을 포함한 합계는 530,000원이다. 523,500원 → 올바르게는 530,000원이다.
③ O. $85,500 + 420,000 + 24,500 = 530,000$원이므로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당기 완성품원가와 일치한다.
④ X. 533,500원은 정상공손원가 28,000원을 전부 완성품에 배분한 값이다. 정상공손원가 중 기말재공품 배분액 3,500원은 완성품원가에서 제외해야 한다. 533,500원 → 올바르게는 530,000원이다.
⑤ X. 540,000원은 선입선출법에 따른 완성품원가의 세 구성액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기초재공품 완성원가, 당기 착수·완성품원가, 완성품의 정상공손 배분액을 합하면 530,000원이다. 540,000원 → 올바르게는 53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④처럼 정상공손원가 28,000원을 모두 완성품에 넣으면 안 된다. 기말재공품도 당기에 검사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이므로 정상공손원가 3,500원이 배분된다. 또한 기초재공품은 기초에 이미 검사시점을 지난 상태이므로 당기 정상공손 수량의 기준이 되는 당기 검사 통과량에서는 제외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물량흐름으로 실제 공손을 구하고, 검사시점을 지난 당기 합격품만으로 정상공손 수량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선입선출법의 당기 완성품환산량과 단위당 원가를 구한 뒤, 정상공손원가를 검사 통과 합격품에 배분하여 완성품 몫만 완성품원가에 더한다.

암기 포인트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와 당기 추가원가를 구분하고, 정상공손원가는 검사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에 배분한다.

NoteBase

문 31.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통하여 주산품 X, Y와 부산품 B를 생산하고 있다. 당기 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20,000이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NRV)를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한다. 부산품 B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을 적용하며, 부산품 B의 단위당 판매비는 ₩5이다. 당기의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공품은 없다.)

제품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생산량	판매량
X	₩4,000	₩60	200단위	180단위
Y	2,000	40	250	200
B	-	15	200	150

① ₩3,500

② ₩3,750

③ ₩4,000

④ ₩4,100

⑤ ₩4,25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부산품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결합원가에서 먼저 차감한 뒤, 주산품의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 비율로 나머지 결합원가를 배부하여 기말재고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부산품 B는 생산기준법을 적용하므로 생산량 전체를 생산시점의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한다. X와 Y의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는 최종 판매가치에서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하여 구한다. 기말수량은 X 20단위, Y 50단위, B 50단위이다.

사용할 공식

분리점 NRV=최종 판매가치-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
주산품 배부대상 결합원가=총 결합원가-부산품 NRV
기말재고=단위당 원가×기말수량
부산품 생산기준법에서는 부산품의 생산시점 순실현가능가치가 주산품에 배부할 결합원가를 줄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B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15원-5원=10원이고, 생산량 200단위의 순실현가능가치는 2,000원이다. 따라서 주산품에 배부할 결합원가는 20,000원-2,000원=18,000원이다.
2. X의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는 60원×200단위-4,000원=8,000원이고, Y는 40원×250단위-2,000원=8,000원이다. 배부비율이 1:1이므로 X와 Y에 결합원가를 각각 9,000원씩 배부한다.
3. X의 단위당 원가는 (9,000원+4,000원)÷200단위=65원이므로 기말재고는 20단위×65원=1,300원이다. Y의 단위당 원가는 (9,000원+2,000원)÷250단위=44원이므로 기말재고는 50단위×44원=2,200원이다.
4. B의 기말재고는 50단위×10원=500원이다. 따라서 전체 기말재고는 1,300원+2,200원+500원=4,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3,500원은 X와 Y의 기말재고만 합한 금액으로, 생산기준법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 B의 기말재고 5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른 금액은 4,000원이다.
② X — 계산된 전체 기말재고 4,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X 1,300원, Y 2,200원, B 500원을 모두 합한 올바른 금액은 4,000원이다.
③ O — X 1,300원, Y 2,200원, B 500원의 합계가 4,000원이므로 옳다.
④ X — 계산된 전체 기말재고보다 100원 많다. 주산품 배부대상 결합원가는 부산품 순실현가능가치 2,000원을 차감한 18,000원이며, 올바른 기말재고는 4,000원이다.
⑤ X — 계산된 전체 기말재고보다 250원 많다. B는 판매량 150단위가 아니라 생산량 200단위를 기준으로 생산시점에 인식하고, 기말 50단위는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0원으로 평가하므로 올바른 기말재고는 4,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부산품 B의 기말재고 500원을 빠뜨려 3,500원을 고르는 것이다. 생산기준법에서는 B의 생산량 전체 순실현가능가치 2,000원을 결합원가에서 차감하지만, 판매되지 않은 50단위는 동시에 기말재고로 남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산품 생산기준법 문제는 '부산품 전체 NRV 계산 → 주산품 배부대상 결합원가 차감 → 주산품별 NRV 비율 배부 → 주산품과 부산품의 기말재고 합산'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기준법의 부산품은 생산량 전체 NRV로 결합원가를 줄이고, 미판매 수량의 NRV는 기말재고에 포함된다.

NoteBase

문 32.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예산은 ₩12,75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고정예산은 ₩17,100,000이고 기준조업도는 3,000직접노무시간이다. 당기에 실제 투입된 직접노무시간은 3,200시간이고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가 ₩1,275,000 불리한 것으로 계산되었다면,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① ₩425,000(유리)

② ₩425,000(불리)

③ ₩570,000(유리)

④ ₩570,000(불리)

⑤ ₩1,140,000(불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에서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무시간을 역산하고, 이를 이용해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 ₩12,75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17,100,000
기준조업도: 3,000직접노무시간
실제직접노무시간: 3,200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1,275,000 불리
구해야 할 값: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사용할 공식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SR_V = B_V/DH$이다. 여기서 B_V는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 DH는 기준조업도이다.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SR_V \times (AH - SH)$이다. 여기서 AH는 실제직접노무시간, SH는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무시간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SR_F \times (DH - SH)$이다. 여기서 SR_F는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이다.
능률차이가 표준허용시간을 찾는 단서를 제공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의 배부액도 같은 표준허용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12,750,000 ÷ 3,000시간 = 시간당 ₩4,250이다.
2. 능률차이가 불리하므로 실제시간이 표준허용시간보다 많다. 따라서 ₩4,250 × (3,200시간 - *SH*) = ₩1,275,000이고, 시간 차이는 300시간이므로 *SH*는 2,900시간이다.
3.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17,100,000 ÷ 3,000시간 = 시간당 ₩5,700이다.
4. 조업도차이는 ₩5,700 × (3,000시간 - 2,900시간) = ₩570,000이다. 표준허용시간이 기준조업도보다 100시간 적어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과소배부되므로 불리한 차이이다.

선지 판단

① X — '₩425,000(유리)'은 금액과 유·불리 방향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570,000(불리)이다.
② X — '₩425,000(불리)'은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틀리다.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5,700에 조업도 차이 100시간을 곱하므로 올바르게는 ₩570,000(불리)이다.
③ X — '₩570,000(유리)'은 금액은 맞지만 방향이 틀리다. 표준허용시간 2,900시간이 기준조업도 3,000시간보다 작아 과소배부되므로 올바르게는 ₩570,000(불리)이다.
④ O — 계산된 조업도차이는 ₩570,000이고 과소배부에 해당하므로 불리하다.
⑤ X — '₩1,140,000(불리)'은 금액이 틀리다. 조업도 차이는 20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이므로 올바르게는 ₩570,000(불리)이다.

오답 포인트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를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로 바로 바꾸면 안 된다. 먼저 시간당 ₩4,250으로 실제시간과 표준허용시간의 차이 300시간을 구해 *SH*를 2,900시간으로 역산한 뒤,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5,700과 기준조업도와의 차이 100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표준허용시간이 기준조업도보다 작으면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과소배부되어 불리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로 *SH*를 먼저 역산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에 *DH* − *SH*를 곱한다. 기준조업도 *DH*가 *SH*보다 크면 과소배부이므로 불리, 작으면 과대배부이므로 유리하다.

암기 포인트

능률차이는 실제시간과 표준허용시간의 차이이고, 조업도차이는 기준조업도와 표준허용시간의 차이이다.

NoteBase

문 33. (주)세무는 당기에 신제품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2,000단위를 생산 및 판매하였으며, 처음 1,000단위 생산에 소요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제품 생산은 80%의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최근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제품 2,000단위를 주문받았다. 이 주문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제조원가 총액은?

○ 직접재료원가	₩400,000
○ 직접노무원가(1,000시간×₩2,000)	2,000,000
○ 변동제조간접원가(직접노무원가의 50%)	1,000,000
○ 고정제조간접원가	3,200,000

① ₩1,920,000

② ₩2,880,000

③ ₩3,280,000

④ ₩3,680,000

⑤ ₩5,6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80%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을 적용하여 앞으로 추가 생산할 2,000단위의 직접노무원가를 구한 뒤, 직접재료원가와 변동제조간접원가를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처음 1,000단위의 직접재료원가는 400,000원, 직접노무원가는 2,000,000원이며,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50%이다.
학습곡선: 누적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단위당 누적평균 직접노무원가가 직전의 80%가 된다.
구해야 할 값: 이미 생산한 2,000단위가 아니라 새 주문으로 추가 생산할 2,000단위의 변동제조원가 총액이다.
주의할 조건: 학습효과는 직접노무원가에 적용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변동제조원가에서 제외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누적생산량이 2배가 될 때의 단위당 누적평균 직접노무원가는 다음과 같다.
새 누적평균원가=직전 누적평균원가× 0.8
추가 직접노무원가는 다음과 같다.
추가 직접노무원가=새 누적총원가-기존 누적총원가
80%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은 개별 생산구간의 원가가 아니라 누적생산량 전체의 단위당 평균에 적용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처음 1,000단위의 단위당 직접노무원가는 2,000,000원 ÷ 1,000단위 = 2,000원이다.
2. 누적생산량 2,000단위의 단위당 누적평균 직접노무원가는 2,000원 × 80% = 1,600원이고, 누적 직접노무원가는 1,600원 × 2,000단위 = 3,200,000원이다.
3. 새 주문까지 생산하면 누적생산량은 4,000단위가 된다. 이때 단위당 누적평균 직접노무원가는 1,600원 × 80% = 1,280원이고, 누적 직접노무원가는 1,280원 × 4,000단위 = 5,120,000원이다.
4. 추가 2,000단위의 직접노무원가는 5,120,000원 - 3,200,000원 = 1,920,000원이다.
5. 추가 직접재료원가는 400,000원 × 2 = 800,000원이고, 변동제조간접원가는 1,920,000원 × 50% = 960,000원이다.
6. 주문의 변동제조원가 총액은 800,000원 + 1,920,000원 + 960,000원 = 3,68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920,000원은 추가 2,000단위의 직접노무원가만 계산한 금액이다. 직접재료원가와 변동제조간접원가도 포함하여 3,68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2,880,000원은 직접노무원가 1,920,000원과 변동제조간접원가 960,000원만 합친 금액으로, 직접재료원가 800,000원이 빠졌다. 올바른 총액은 3,680,000원이다.
③ X — 3,280,000원은 직접재료원가를 처음 1,000단위분인 400,000원만 반영한 금액이다. 새 주문은 2,000단위이므로 직접재료원가는 800,000원이고, 올바른 총액은 3,680,000원이다.
④ O — 추가 직접재료원가 800,000원, 추가 직접노무원가 1,920,000원, 변동제조간접원가 960,000원의 합계가 3,680,000원이다.
⑤ X — 5,600,000원은 추가 주문의 직접노무원가 대신 이미 생산한 첫 2,000단위의 누적 직접노무원가 3,200,000원을 사용하면 나오는 금액이다. 추가 생산분의 직접노무원가 1,920,000원을 사용하여 3,68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80%를 추가 생산구간에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평균에 적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문제는 직접노무원가가 아니라 변동제조원가 총액을 묻고 있으므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연동 변동제조간접원가를 모두 포함하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제외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누적생산량별 평균원가를 먼저 구하고, 각 누적평균원가에 누적수량을 곱해 누적총원가로 바꾼 뒤, 두 누적총원가의 차이로 추가 생산분의 원가를 구한다. 마지막에는 문제에서 요구한 원가 범위에 맞추어 직접재료원가와 관련 변동원가를 더한다.

암기 포인트

학습률은 누적평균에 적용하고, 추가분은 누적총원가의 차이로 구한다. 변동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변동제조간접원가이다.

NoteBase

문 34. (주)세무는 제품 X와 Y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신제품 Z를 개발하여 생산 및 판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품 Z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220이며 제품 X, Y, Z의 판매량 배합비율은 각각 30%, 20%, 50%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Z를 추가 생산할 경우 제품 Y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단, 제품 Z를 생산하더라도 제품 X와 제품 Y의 단위당 공헌이익, 고정원가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제품 X	제품 Y
판매량 배합비율	20%	80%
단위당 공헌이익	₩300	₩200
손익분기점 판매량	600단위	2,400단위

① 550단위

② 825단위

③ 1,375단위

④ 2,400단위

⑤ 2,750단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복수제품의 판매배합이 바뀔 때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전체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한 뒤, 해당 제품의 배합비율을 곱해 제품별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존 판매배합은 X 20%, Y 80%이고, 단위당 공헌이익은 X 300원, Y 200원이다. 기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X 600단위, Y 2,400단위이므로 전체 3,000단위이다.
Z 추가 후 판매배합은 X 30%, Y 20%, Z 50%이고, Z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220원이다. 단위당 공헌이익과 고정원가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구해야 할 값은 새 판매배합에서 제품 Y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Σ(제품별 단위당 공헌이익×판매배합비율)
전체 손익분기점 판매량=고정원가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
제품별 손익분기점 판매량=전체 손익분기점 판매량×해당 제품의 판매배합비율
복수제품에서는 판매배합을 유지한 채 판매된다고 가정하므로 각 제품의 공헌이익을 배합비율로 가중한 평균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기존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은 $300 \times 0.2 + 200 \times 0.8 = 220$원이므로 고정원가는 $3,000 \times 220 = 660,000$원이다.
2. Z 추가 후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은 $300 \times 0.3 + 200 \times 0.2 + 220 \times 0.5 = 240$원이다.
3. 새 배합의 전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660,000 \div 240 = 2,750$단위이다.
4. 이 중 Y의 판매배합은 20%이므로 Y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2,750 \times 0.2 = 550$단위이다.

선지 판단

① O — Y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전체 손익분기점 2,750단위의 20%인 550단위이다.
② X — 825단위는 2,750단위에 X의 배합비율 30%를 곱한 수량이다. ‘Y 825단위’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Y 550단위이다.
③ X — 1,375단위는 2,750단위에 Z의 배합비율 50%를 곱한 수량이다. ‘Y 1,375단위’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Y 550단위이다.
④ X — 2,400단위는 Z를 추가하기 전 기존 배합에서의 Y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다. 판매배합 변경을 반영하면 Y는 550단위이다.
⑤ X — 2,750단위는 세 제품을 합한 전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다. ‘Y 2,750단위’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전체 2,750단위 중 Y 550단위이다.

오답 포인트

전체 손익분기점 2,750단위를 구한 뒤 계산을 끝내면 ⑤를 고르게 된다. 문제는 제품 Y의 판매량을 묻고 있으므로 마지막에 Y의 새 배합비율 20%를 곱해야 한다. 또한 ②와 ③은 각각 X와 Z의 배합비율을 잘못 적용한 값이고, ④는 변경 전 Y의 수량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존 손익분기점 자료로 고정원가를 역산하고, 새 판매배합으로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을 다시 계산한다. 이어 전체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한 뒤 문제에서 요구한 제품의 새 배합비율을 곱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복수제품 손익분기점은 '가중평균 공헌이익으로 전체 수량 계산 → 해당 제품의 배합비율로 제품별 수량 배분'이다.

NoteBase

문 35. (주)세무는 고급생수를 단위당 ₩2,000에 판매하려 한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1,000이며, 월간 고정원가는 ₩3,000,000이다. 고급생수의 수요량은 불확실하지만 월간 기대판매량이 4,200개, 표준편차는 800개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월간 목표영업이익이 ₩400,000 이상 발생할 확률은? (단, 다음의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z	P(Z≤z)	z	P(Z≤z)	z	P(Z≤z)
0.5	0.691	1.0	0.841	1.5	0.933
2.0	0.977	2.5	0.994	3.0	0.999

① 69.1%

② 84.1%

③ 93.3%

④ 97.7%

⑤ 99.4%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목표영업이익을 달성하는 최소 판매량을 구한 뒤, 이를 표준화하여 정규분포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가격은 단위당 2,000원, 변동원가는 단위당 1,000원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1,000원이다.
월간 고정원가는 3,000,000원이고 목표영업이익은 400,000원이다.
월간 판매량을 Q라 하면 Q는 평균 4,200개, 표준편차 800개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사용할 공식

영업이익은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하여 구한다.
π=(판매가격-단위당 변동원가)Q-고정원가
판매량의 표준화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Q - \mu}{\sigma}$
목표영업이익 조건을 먼저 판매량 조건으로 바꾸고, 그 판매량이 평균에서 표준편차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구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목표영업이익 400,000원 이상이 되기 위한 판매량을 구한다.

$1{,}000Q - 3{,}000{,}000 \geq 400{,}000$

$Q \geq 3{,}400$

2. 판매량 3,400개를 표준화한다.

$z = \frac{3{,}400 - 4{,}200}{800} = -1.0$

3. 구하려는 확률은 $P(Q \geq 3{,}400) = P(Z \geq -1.0)$이다. 표준정규분포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P(Z≥-1.0)=P(Z≤1.0)=0.841

따라서 목표영업이익이 400,000원 이상일 확률은 84.1%이다.

선지 판단

① X — 69.1%는 표의 P(Z≤0.5)=0.691에 해당한다. 이 문제의 표준화된 거리는 0.5가 아니라 1.0이므로, 올바른 확률은 84.1%이다.

② O — P(Z≥-1.0)=P(Z≤1.0)=0.841이므로 84.1%가 맞다.

③ X — 93.3%는 표의 P(Z≤1.5)=0.933에 해당한다. 이 문제에서는 $z = 1.0$을 사용하므로, 올바른 확률은 84.1%이다.

④ X — 97.7%는 표의 P(Z≤2.0)=0.977에 해당한다. 이 문제에서는 $z = 1.0$을 사용하므로, 올바른 확률은 84.1%이다.

⑤ X — 99.4%는 표의 P(Z≤2.5)=0.994에 해당한다. 이 문제에서는 $z = 1.0$을 사용하므로, 올바른 확률은 84.1%이다.

오답 포인트

목표영업이익 400,000원을 매출액과 혼동하거나 고정원가를 누락하면 최소 판매량 3,400개를 잘못 구하게 된다. 또한 표준화 결과가 -1.0이므로 왼쪽 누적확률을 그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대칭성을 이용해 P(Z≥-1.0)=P(Z≤1.0)으로 바꾸어야 한다. 나머지 선지는 표에 제시된 다른 z값의 누적확률을 그대로 고르게 하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표이익 확률 문제는 단위당 공헌이익 계산 → 목표이익 달성에 필요한 판매량 계산 → 판매량 표준화 → 확률의 방향과 대칭성 확인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목표판매량은 (고정원가+목표이익)/(단위당 공헌이익)이고, $P(Z \geq -a) = P(Z \leq a)$이다.

NoteBase

문 36. 20x1년 초 설립된 (주)세무의 20x1년부터 20x3년까지의 영업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x2년과 20x3년의 판매량은 각각 몇 단위인가? (단, (주)세무는 기초 및 기말재공품이 없고,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되며 세 기간의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고정판매관리비는 동일하다.)

구분	20×1년	20×2년	20×3년
생산량	2,000단위	2,400단위	2,200단위
판매량	?	?	?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44,000	₩50,000	₩46,000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80,000	42,000	54,000
고정제조간접원가	240,000	336,000	264,000

① 20×2년: 1,700단위 / 20×3년: 2,100단위

② 20×2년: 1,700단위 / 20×3년: 2,500단위

③ 20×2년: 2,100단위 / 20×3년: 2,500단위

④ 20×2년: 2,500단위 / 20×3년: 2,100단위

⑤ 20×2년: 2,500단위 / 20×3년: 2,400단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의 차이로 각 연도 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구한 뒤, 재고수량의 흐름을 이용하여 판매량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고정제조간접원가의 단위당 배부액은 20×1년 120원(240,000원 ÷ 2,000단위), 20×2년 140원(336,000원 ÷ 2,400단위), 20×3년 120원(264,000원 ÷ 2,200단위)이다.
기초·기말재공품은 없으며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먼저 기초제품을 판매하고, 기말제품은 당기 생산분으로 구성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을 I_A,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을 I_V라고 하면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I_A-I_V=기말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기초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전부원가계산에서는 미판매 제품에 배부된 금액을 재고자산으로 이연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20×1년의 이익 차이는 80,000원 - 44,000원 = 36,000원이다.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6,000원이고, 기말재고는 36,000원 ÷ 120원 = 300단위이다. 따라서 20×1년 판매량은 2,000단위 - 300단위 = 1,700단위이다.
2. 20×2년 기초재고에는 20×1년 고정제조간접원가 36,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익 차이는 42,000원 - 50,000원 = -8,000원이므로 20×2년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8,000원 + 36,000원 = 28,000원이다. 기말재고는 28,000원 ÷ 140원 = 200단위이고, 판매량은 300단위 + 2,400단위 - 200단위 = 2,500단위이다.
3. 20×3년 기초재고에는 20×2년 고정제조간접원가 28,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익 차이는 54,000원 - 46,000원 = 8,000원이므로 20×3년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8,000원 + 28,000원 = 36,000원이다. 기말재고는 36,000원 ÷ 120원 = 300단위이고, 판매량은 200단위 + 2,200단위 - 300단위 = 2,100단위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3년 2,100단위는 맞지만, 20×2년의 1,700단위가 틀렸다. 올바른 20×2년 판매량은 2,500단위이다.
② X — 20×2년 1,700단위와 20×3년 2,500단위가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각각 2,500단위와 2,100단위이다.
③ X — 20×2년 2,100단위와 20×3년 2,500단위가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각각 2,500단위와 2,100단위이다.
④ O — 계산된 판매량인 20×2년 2,500단위, 20×3년 2,100단위와 모두 일치한다.
⑤ X — 20×2년 2,500단위는 맞지만, 20×3년의 2,400단위가 틀렸다. 올바른 20×3년 판매량은 2,100단위이다.

오답 포인트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의 차이를 곧바로 재고수량으로 보면 안 된다. 이익 차이는 재고수량이 아니라 재고에 이연되거나 재고에서 환입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또한 20×2년과 20×3년에는 기초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먼저 반영한 뒤 당기 기말재고 금액을 구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연도별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전부원가계산이익 - 변동원가계산이익 =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적용하여 기말재고수량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재고수량 + 생산량 - 기말재고수량 = 판매량'으로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전부이익과 변동이익의 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재고 증감이고, 판매량은 기초재고와 생산량의 합계에서 기말재고를 뺀 값이다.

NoteBase

문 37. (주)세무는 계산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최대생산능력은 10,000대이다. (주)세무는 정규시장에 계산기 1대당 ₩200에 8,000대를 판매하고 있다. 한 번에 50대씩 묶음(batch) 생산하며, 8,000대 생산에 대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특별주문에 대해 전량을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하며, 특별주문 수락시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 (주)세무는 (주)대한으로부터 계산기 3,000대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으며, 이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100대씩 묶음 생산한다. (주)세무가 이 특별주문과 관련하여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요구해야 하는 계산기 1대당 최소금액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	₩480,000
묶음수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	160,000
고정원가	800,000
	₩1,440,000

① ₩110

② ₩115

③ ₩120

④ ₩125

⑤ ₩13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특별주문으로 증가하는 원가와 정규시장 판매 포기로 발생하는 기회원가를 합하여 손실이 없는 최소 특별주문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최대생산능력 10,000대, 정규시장 판매량 8,000대, 정규시장 판매가격 대당 ₩200, 특별주문량 3,000대이다. 8,000대 생산 시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는 ₩480,000, 묶음수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는 ₩160,000, 고정원가는 ₩800,000이다.
구해야 할 값: 특별주문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대당 최소금액이다.
주의할 조건: 유휴생산능력은 2,000대뿐이므로 특별주문 3,000대를 전량 수락하면 정규시장 판매 1,000대를 포기한다. 정규생산은 50대씩, 특별주문은 100대씩 묶음 생산하므로 묶음 관련 원가를 각각의 묶음 크기로 계산한다. 고정원가 ₩800,000은 특별주문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관련원가에서 제외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P_{\min} = \frac{C_{\text{incremental}} + C_{\text{opportunity}}}{Q_{\text{special}}}$$

여기서 최소 특별주문가격은 특별주문 증분원가와 정규판매 포기의 기회원가를 합한 뒤 특별주문량으로 나눈 값이다. 특별주문 수락 여부는 수락으로 달라지는 미래 현금흐름을 비교하는 의사결정이므로, 증분원가와 포기한 공헌이익인 기회원가만 포함한다.

계산 과정

1.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는 대당 ₩60이다.
₩480,000 ÷ 8,000대 = ₩60
2. 묶음수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는 묶음당 ₩1,000이다.
₩160,000 ÷ (8,000대 ÷ 50대) = ₩1,000
3. 특별주문 3,000대는 100대씩 30묶음이므로 특별주문의 증분원가는 ₩210,000이다.
(₩60 × 3,000대) + (₩1,000 × 30묶음) = ₩210,000
4. 포기하는 정규판매 1,000대의 공헌이익은 ₩120,000이다. 정규판매 1,000대를 하지 않으면 생산변동원가 ₩60,000과 50대씩 20묶음의 묶음변동원가 ₩20,000도 함께 절감된다.
(₩200 × 1,000대) - (₩60 × 1,000대) - (₩1,000 × 20묶음) = ₩120,000
5. 따라서 최소 총 주문금액은 ₩330,000이고, 대당 최소금액은 ₩110이다.
(₩210,000 + ₩120,000) ÷ 3,000대 = ₩110

선지 판단

① O. 계산된 대당 최소금액 ₩110과 일치한다. 이 가격이면 특별주문 매출 ₩330,000이 증분원가 ₩210,000과 기회원가 ₩120,000을 정확히 보전한다.
② X. ₩115라는 금액이 틀렸다. 관련원가 총액은 ₩330,000이므로 올바른 대당 최소금액은 ₩110이다.
③ X. ₩120라는 금액이 틀렸다. 기존 묶음변동원가 ₩160,000을 8,000대로 단순 배분하면 대당 ₩20으로 보게 되지만, 특별주문은 100대씩 생산하므로 실제 묶음변동원가는 대당 ₩10이다. 올바른 최소금액은 ₩110이다.
④ X. ₩125라는 금액이 틀렸다. 특별주문에 필요한 증분원가와 정규판매 포기의 기회원가만 합하면 대당 ₩110이며, 고정원가나 배부액을 추가하지 않는다.
⑤ X. ₩130라는 금액이 틀렸다. 고정원가 ₩800,000은 특별주문 수락으로 증가하지 않으므로 최소가격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올바른 최소금액은 ₩110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묶음 크기의 변화이다. 기존 자료의 묶음변동원가 ₩160,000을 8,000대로 나누어 대당 ₩20으로 처리하면 ③ ₩120을 고르게 된다. 특별주문은 100대당 한 묶음이므로 묶음변동원가는 대당 ₩10이다. 또한 유휴생산능력 2,000대를 넘는 1,000대에 대해서만 정규판매 포기의 기회원가가 발생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별주문 문제는 먼저 유휴생산능력을 확인하고, 초과 주문량만큼 포기하는 정규판매의 공헌이익을 기회원가로 계산한다. 그다음 생산량 기준 변동원가와 활동량 기준 변동원가를 각각 실제 주문 조건에 맞게 계산하고, 변하지 않는 고정원가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최소 특별주문가격은 '증분원가 + 기회원가'이다. 묶음 크기가 바뀌면 묶음당 원가를 새 묶음수로 다시 계산한다.

NoteBase

문 38. (주)세무는 신제품 생산을 위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다. 새로운 기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기계로부터 예상되는 세전영업현금흐름은 매년 ₩300,000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율은 30%이다.)

◯ 구입원가: ₩1,200,000
◯ 추정내용연수: 5년
◯ 추정잔존가액: ₩200,000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① 매년 예상되는 순현금유입액은 ₩210,000이다.
② 회수기간은 3.84년이다.
③ 평균투자액은 ₩600,000이다.
④ 매년 예상되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0,000이다.
⑤ 평균투자액에 대한 회계적이익률은 10%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구한 뒤 세후 영업현금흐름, 회수기간, 평균투자액, 회계적이익률을 차례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구입원가는 1,200,000원, 추정잔존가액은 200,000원, 내용연수는 5년, 세전영업현금흐름은 매년 300,000원, 법인세율은 30%이다. 정액법에서는 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사용할 공식

연간 감가상각비는 (구입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이다. 세후 영업현금흐름은
세전영업현금흐름×(1-세율)+감가상각비× 세율이고, 평균투자액은 (구입원가+잔존가액)/(2)이다.
회계적이익률은 (연평균 세후순이익)/(평균투자액)×100\%이다. 감가상각비는 현금유출이 아니지만
과세소득을 줄여 절세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세후 영업현금흐름에 감가상각비의 세금효과를 더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1{,}200{,}000-200{,}000}{5}=200{,}000$원이다.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00{,}000-200{,}000=100{,}000$원이고, 세후순이익은 $100{,}000\times(1-0.30)=70{,}000$원이다.
3. 연간 순현금유입액은 $70{,}000+200{,}000=270{,}000$원이다.
4. 회수기간은 $\frac{1{,}200{,}000}{270{,}000}\approx 4.44$년이다.
5. 평균투자액은 $\frac{1{,}200{,}000+200{,}000}{2}=700{,}000$원이다.
6. 평균투자액에 대한 회계적이익률은 $\frac{70{,}000}{700{,}000}\times 100\%=10\%$이다.

선지 판단

① X - 매년 예상되는 순현금유입액은 210,000원이 아니라 270,000원이다. 210,000원은 세전영업현금흐름 300,000원에 단순히 세후율 70%만 곱하여 감가상각비의 절세효과 60,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② X - 회수기간은 3.84년이 아니라 약 4.44년이다. 최초투자액 1,200,000원을 연간 순현금유입액 270,000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 X - 평균투자액은 600,000원이 아니라 700,000원이다. 정액법에서 평균투자액은 구입원가와 잔존가액의 평균이므로 잔존가액 200,000원을 포함한다.
④ X - 매년 예상되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이다. 70,000원은 법인세차감후순이익이다.
⑤ O - 세후순이익 70,000원을 평균투자액 700,000원으로 나누면 회계적이익률은 10%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세전영업현금흐름을 단순 세후화하여 감가상각비 절세효과를 빠뜨리게 하는 함정이고, ③은 평균투자액 계산에서 잔존가액을 제외하게 하는 함정이다. 또한 ④의 70,000원은 세전순이익이 아니라 세후순이익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세전 영업현금흐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세전순이익을 계산한다. 이어 법인세를 반영한 세후순이익에 비현금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 순현금유입액을 구한 뒤, 회수기간과 회계적이익률을 각각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세후순이익은 세전영업현금흐름에서 감가상각비와 법인세를 반영한 값이고, 세후 영업현금흐름은 그 세후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한 값이다. 평균투자액은 구입원가+잔존가액의 절반이다.

NoteBase

문 39. (주)세무는 상품매매기업으로 20x4년 3분기 월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월말재고로 그 다음 달 매출원가의 20%를 보유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세무의 월별 예상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주)세무의 매월 상품매입 중 40%는 현금매입이며, 60%는 외상매입이다. 외상매입대금은 매입한 달의 다음 달에 전액 지급된다.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주)세무의 20x4년 8월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현금지출액이 ₩254,800일 때, 9월 예상되는 매출액은?

	7월	8월	9월
매출액	₩300,000	₩400,000	?

① ₩450,000

② ₩475,000

③ ₩500,000

④ ₩525,000

⑤ ₩550,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원가를 구한 뒤 재고정책에 따라 월별 상품매입액을 계산하고, 현금매입과 전월 외상매입대금 지급을 합하여 8월 현금지출액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매출총이익률이 30%이므로 매출원가율은 70%이다.
월말재고는 다음 달 매출원가의 20%이다.
매월 상품매입액 중 40%는 당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60%는 외상매입하여 다음 달에 전액 지급한다.
7월 매출액은 300,000원, 8월 매출액은 400,000원이며, 8월 현금지출액은 254,8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9월 매출액이다.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매출액× 70\%
상품매입액=매출원가+기말재고-기초재고
8월 현금지출액=8월 상품매입액× 40\%+7월 상품매입액× 60\%
상품매입액은 판매에 필요한 매출원가에 기말재고를 더하고 이미 보유한 기초재고를 빼서 구한다. 8월에는 8월 현금매입분과 7월 외상매입분을 지급하므로 마지막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9월 매출액을 S라고 한다.
1. 7월과 8월 매출액은 각각 300,000원, 400,000원이고, 매출원가는 각각 $300,000 \times 70\% = 210,000$원, $400,000 \times 70\% = 280,000$원이다.
2. 6월 말 재고는 7월 매출원가의 20%인 42,000원이고, 7월 말 재고는 8월 매출원가의 20%인 56,000원이다. 따라서 7월 상품매입액은 $210,000 + 56,000 - 42,000 = 224,000$원이다.
3. 8월 말 재고는 9월 매출원가의 20%이므로 $S \times 70\% \times 20\% = 0.14S$원이다. 따라서 8월 상품매입액은 $280,000 + 0.14S - 56,000 = 224,000 + 0.14S$원이다.
4. 8월 현금지출액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254,800 = 0.4(224,000 + 0.14S) + 0.6(224,000)$
$254,800 = 224,000 + 0.056S$
$S = 550,000$
따라서 9월 예상매출액은 55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9월 매출액을 450,000원으로 두면 8월 현금지출액은 249,200원으로, 주어진 254,8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450,000원'은 '55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9월 매출액을 475,000원으로 두면 8월 현금지출액은 250,600원으로, 주어진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475,000원'은 '55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9월 매출액을 500,000원으로 두면 8월 현금지출액은 252,000원으로, 주어진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500,000원'은 '55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9월 매출액을 525,000원으로 두면 8월 현금지출액은 253,400원으로, 주어진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525,000원'은 '55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9월 매출액이 550,000원이면 8월 현금지출액이 254,800원이 되어 문제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8월 현금지출액을 8월 상품매입액 전체와 같다고 보면 안 된다. 8월 지출액에는 8월 상품매입액의 현금매입분 40%와 7월 상품매입액의 외상매입분 60%가 포함된다. 또한 8월 말 재고는 8월이 아니라 다음 달인 9월 매출원가의 20%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구하고, '기말재고는 다음 달 매출원가 기준'이라는 시차를 반영하여 상품매입액을 계산한다. 그다음 현금지급 시점을 구분하여 당월 현금매입분과 전월 외상매입분을 합한 식을 세운다.

암기 포인트

상품매입액은 매출원가+기말재고-기초재고이고, 당월 현금지출액은 당월 현금매입분+전월 외상매입분이다.

NoteBase

문 40. (주)세무는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각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계산하고자 한다. 사업부 중 한 곳인 중부사업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두 가지 자금원천 중 하나인 타인자본의 시장가치는 ₩400,000이고, 그에 대한 이자율은 10%이다. 나머지 원천인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는 ₩600,000이고 그에 대한 자본비용은 15%이다. 투자수익률 계산시 총자산과 세전영업이익을 사용하였다. 각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 계산은 기업전체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용하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세전영업이익은 투자수익률 계산시의 영업이익과 동일하였다. (주)세무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20%일 때, 중부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 총자산: ₩400,000
◯ 투자수익률(ROI): 30%
◯ 유동부채: ₩100,000

① ₩57,400
② ₩58,000
③ ₩58,400
④ ₩59,000
⑤ ₩59,4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투자수익률로 세전영업이익을 구한 뒤 세후영업이익,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 투하자본을 차례로 계산하여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자산은 ₩400,000, 투자수익률은 30%, 유동부채는 ₩100,000이다. 타인자본의 시장가치는 ₩400,000이고 세전 이자율은 10%이며,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는 ₩600,000이고 자본비용은 15%이다. 법인세율은 20%이다. 투자수익률은 총자산과 세전영업이익을 사용하고, EVA에는 기업 전체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용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세전영업이익=총자산× ROI
NOPAT=세전영업이익×(1-법인세율)
$WACC = w_d k_d(1 - t) + w_e k_e$
투하자본=총자산-유동부채
EVA=NOPAT-(투하자본× WACC)
EVA는 세후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한 값이다. 세후영업이익과 대응시키기 위해 타인자본비용에는 이자비용의 법인세 절감효과를 반영한다.

계산 과정

1. 세전영업이익은 ₩400,000 × 30% = ₩120,000이다.
2. 세후영업이익(NOPAT)은 ₩120,000 × (1 - 20%) = ₩96,000이다.
3. 자본구성비는 타인자본 40%, 자기자본 60%이다.
4.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은 40% × 10% × (1 - 20%) + 60% × 15% = 12.2%이다.
5. 투하자본은 ₩400,000 - ₩100,000 = ₩300,000이다.
6. 자본비용은 ₩300,000 × 12.2% = ₩36,600이다.
7. EVA는 ₩96,000 - ₩36,600 = ₩59,4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57,400은 계산된 EVA ₩59,400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이며, 올바른 금액은 ₩59,400이다.
② X — ₩58,000은 계산된 EVA ₩59,400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이며, 올바른 금액은 ₩59,400이다.
③ X — ₩58,400은 계산된 EVA ₩59,400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이며, 올바른 금액은 ₩59,400이다.
④ X — ₩59,000은 계산된 EVA ₩59,400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이며, 올바른 금액은 ₩59,400이다.
⑤ O — 세후영업이익 ₩96,000에서 자본비용 ₩36,600을 차감하면 EVA는 ₩59,400이다.

오답 포인트

ROI의 분자는 문제에서 명시한 세전영업이익이므로 먼저 ₩120,000을 구한 뒤 법인세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WACC를 계산할 때 타인자본비용에만 세후 조정인 (1 - 20%)를 적용하고, EVA의 투하자본은 총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300,000으로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EVA 계산 문제는 세전영업이익 산출 → NOPAT 산출 → 세후 WACC 산출 → 투하자본 산출 → 자본비용 차감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EVA = 세후영업이익(NOPAT) - 투하자본 × 세후 WACC이다.

NoteBase